

월간 가든인 Vol.10, February 2014

Gardenin

Vol.10 **2**

Outdoor garden

코레우리 텅커벨분홍
겨울에 아름다운 말채나무류

Indoor garden

본격적인 채소 파종의 계절, 2월
알의 예방과 당뇨·비만에 좋은 호박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농약! 처야 하나, 말아야 하나?

Garden Design & Story

고양이의 눈을 담은 켄이는
발렌타인데이 꽃선물

농약! 처야하나, 말아야하나
2월의 식물관리요령



10,000원

HOW TO GROW YOUR GARDEN

정원시공, 관리, 컨설팅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꽃은 우리나라 고급 경관 트렌드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자연과 가깝게 아름답고, 쾌적한 고품질의 경관으로 창출합니다.

우리꽃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당신의 정원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단조로운 베란다, 쓸모없는 옥상이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유럽풍 키친정원으로, 내 아이의 생애 놀이터로 재탄생됩니다.
피곤한 일상에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정원의 품격

잘 가꾼 정원은 주택의 가치를 높입니다. 정원의 주제와 식물소재는 적당한지,
내 정원환경은 어떤지, 정원 소품 디스플레이 등 현재 정원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꽃의 식물들은 정원의 품격을 차별화 시킵니다.

시공사례



벽화수주식회사 | 031)634-0326
www.uriseed.com



아담하게 피어있는 코레우리 텡커벨분홍을 근접촬영

코레우리 텡커벨분홍

Coreopsis rosea Tinkerbell pink



'코레우리 텡커벨분홍'이라는 이름은 '코레옵시스'에서 왔다. 보통의 코레옵시스에 비해 꽃이 작고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다. 문득 피터팬에 나오는 텡커벨이 생각나 지어졌다고 한다.

국화과의 코스모스와 같은 종이다. 꽃잎이 8개, 꽃받침도 8개이다. 지면으로부터 둥근형으로 아담하게 뻗어나가는 코레우리 텡커벨분홍은 원형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자라는 모습이 잘 만든 꽃다발을 연상시킨다. 코레우리는 100여종의 1년생초와 다년생초로 이루어져 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다. 생육이 매우 강해 이른 봄 1 포기만 심어도 5월말이면 둥근형의 형태를 갖춘다.

커버(표지1면)에 실린 꽃은 우리꽃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텡커벨(Tinkerbell)시리즈 중 하나다. '텡커벨' 시리즈는 초형이 매우 작고 귀여운 꽃이 핀다. 꽃은 50원짜리 동전(코스모스는 500원, 코레우리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약간 작

은 크기로 한 개체에 많은 꽃이 핀다. 빨강, 분홍, 자주색이 있으며 커버에 쓰인 사진은 분홍이다. 하나의 색으로 피는 것도 있지만, 안쪽에서 하얀색으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빨강이나 분홍, 자주가 되고, 반대로 바깥쪽 끝 부분이 하얗고 안쪽으로 갈수록 원색을 갖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코스모스와 닮아 햇갈릴 수도 있지만 엄연히 말해 다른 종이다. 종자를 맺지 않고 햇빛을 좋아하는 호광성(好光性)식물로 실외에 식재하면 좋다. 5월말에서 가을서리가 내릴 때까지 길게 볼 수 있는 품종으로 최근엔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코레우리는 다양한 품종을 무리지어 식재하면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다른 식물과 경쟁하지 않아 혼합식재해도 좋다. 길가나 도로변의 경계 식물로도 그만이다. 꽃말은 '상쾌한 기분'이다. **G**



둥근 원형으로 피어나는 코레우리 텡커벨분홍은 꽃다발을 연상시킬만큼 통성하다.

Outdoor Garden

- 1 cover story
코레우리 텅커벨분홍
- 4 발행인의 글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 속 보이네
- 6 제이드가든
겨울에 더욱 아름답고 따스한 말채나무류
- 10 이달의 식물소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나무'
- 14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꽃향기 가득한 과수정원 김준식(65)
- 18 미국 가든미디어 트렌드 보고
2014년 가드닝 키워드 "균형(Balance)"
- 20 식물소개
영원한 청춘, 순백의 아름다움 '헤베'



Indoor Garden

- 22 윤평섭교수의 가든 이야기
토피아리의 유래와 실제
- 26 베란다 정원관리
본격적인 채소 파종의 계절, 2월
- 30 안완식박사의 먹거리 파일
암의 예방과 당뇨·비만에 좋은 호박
- 38 우정아의 재활동으로 만드는 가든
새창으로 만드는 행잉 가든
- 40 도시 베란다 풍경
겨울철 도시 베란다 정원
- 42 류제의 정원
꽃이 귀한 겨울에서 봄 사이에 피는 에리카
- 44 식물소개
옥상정원 등에 적합한 극건조 대표식물 세덤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 46 식물 바이오필터 바이오 월
- 50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탄생과 역사
- 52 신품종 소개
딸기의 신품종 매향, 설향, 금향
- 54 차병진 수목진단센터장의 으뜸교육
작물보호제 농약! 처야 하나, 말아야 하나?
- 57 경기농업기술원의
2월의 농사정보
- 58 연구원의 희로애락
품종개발 연구원으로서의 희로애락
- 62 기자가 들여다본 도시농업
도심 속에 건강한 흙을 만들자, 충북 괴산군 흙살림

Garden Design & Story

- 68 손관화교수의 세계의 정원
꽃밭, Bed & Border
- 72 서수현 가든디자이너의 정원문화
정원은 문화에서 시작된다, 정원으로의 첫걸음
- 74 이명호의 야생화
고양이의 눈을 닮은 팽이는
- 76 2월의 행사,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줄 꽃 10선
- 78 황주리 기자의 힐링정원
- 80 박물관 탐방
민초들의 '삶의 애환' 이 살아있는 진품생활사박물관

Gardening Information

- 82 황주리 기자의 에코마일리지
- 84 기고문
한국정원문화협회의 창립에 즈음하여
- 86 윤자영의 맛있는 요리
- 88 2월 식물관리 요령
- 90 BOOK
- 92 Q&A
- 94 수필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 '속' 훑쳐보기

정원, 속 보이네



글·사진 박공영
변화수(주) 대표

지중해, 그 강하고 아름다운 아칸서스 속(Genus Acanthus)

아칸서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건조하고 물빠짐이 좋은 암석지역에 서식하는 속으로 약 30여종의 다년생 식물이다. 이목을 끄는 잎과 꽃은 잘자라 정원연출에 있어 매우 유익하게 이용되는 꽃이다. 짙은 녹색의 잎은 우리나라의 엉겅퀴 잎을 닮았지만 가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래 잎은 90~100cm까지 자라고, 잎의 생김새가 다양하며 톱니모양이거나 종중 가시가 있기도 하다. 두 개의 입술 모양의 꽃들은 일반적으로 3.5~5cm정도이며 가시가 있는 포엽은 꽃을 감싸고 꽃받침 조각은 흰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 혹은 보라색의 혼합을 이루고 있다. 꽃대는 직립으로 간혹 4열의 형태를 나타내며 길이는 100cm가 넘는 경우가 많다.

고대 그리스의 상·예술의 중심지였던 코린트식 기둥의 기본 문양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사랑받아 왔다.

아칸서스를 양지바른 곳에 심어 꽃대를 튼튼히 하여 절화용 꽃꽂이 식물로 활용하면 꽃이 매우 오래가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활엽수의 음지 등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음지용으로도 유용하다. 겨울에 물이 차는 곳은 피해야 하며 너무 추운 곳에서는 서늘하게, 따뜻한 온실에서는 약간 건조하게 길러야 한다. 내한성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원용으로 이용하는 종류는 발칸아카스(*A. balcanicus*), 스피노수스(*A. spinosus*)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몰리스(*A. mollis*) 등이 좋다. 정원용으로 이용할 때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심는 것이 좋

다. 특히 뿌리가 굵어지므로 꽃이 지고 난 이후 잘 썩을 수 있어 건조한 지역이 좋다. 따라서 겨울에 너무 춥지 않은 곳이나 혹은 겨울의 월동을 위한 보온작업이 필요하다. 물빠짐이 좋은 건조한 곳에 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음양지에 모두 재배할 수 있고 대형화분에 심어 정원의 포인트로 연출해도 좋다. 번식은 가을이나 봄에 종자를 뿌리고 뿌리 삼목으로도 번식이 잘되므로 겨울철에 직경 5mm 이상의 뿌리를 7~10cm 정도로 잘라 윗부분이 1cm 정도 나오게 비스듬히 꽂고 관리하면 새로운 싹이 튼다. 해충피해는 별로 없지만 달팽이와 고자리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심기 전 토양소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원의 아름다운 강자 톱풀 속(Genus Achillea)

북반구의 온대지역에 있는 주요 낙엽성 다년생 식물로 85여종의 큰 속으로 우리나라에도 몇 종이 분포한다. 고산성의 몇몇 종은 천천히 자라며 매트를 형성하고, 초지나 들판 등 황무지에서 서식하는 다른 종들은 키가 큰 초본이다. 회색 또는 녹색의 잎으로 간혹 향이 나는 종류도 있다. 잎은 고사리 잎과 같이 깊게 갈라져있고 타원형에서 창모양, 톱니모양과 같다. 대부분의 종은 길이가 15~30cm이고, 작은 것은 5~12cm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아래 잎은 타원형이고 점차 자라면서 줄기 잎은 가는 톱니처럼 된다.

대부분의 톱풀 속은 3~15mm의 테이지처럼 생긴 두상화를 피우는데 주로 초여름과 가을에 꽃을 피운다. 최근에는 늦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꽃을 피우는 종류도 개발되었는데 보통은 초여름에 피는 것은 화색이 다양하고 여름에서 가을에 피는 종류는 노랑 혹은 하얀색이 많다. 갤럭시 시리즈(Galaxy Hybrid) 등 새로운 재배품종들은 다양한 색을 제공하며, 하나의 꽃대에 15~20cm정도로 크고 작은 두상화들이 복합적으로 피어난다. 톱풀 속은 야생화 화단이나 암석 가든 등에 재배하는데 키가 큰 것은 혼합식재 화단에 적합하며, 키가 작은것은 꽃꽂이와 건조



하여 드라이플라워를 만드는데도 유용하다. 잎에 접촉 시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 전국 어디에서도 재배가능하다. 대부분의 종류는 아주 넓은 범위의 토양과 기후조건에 내성이 있으나 약간 습기가 있는 곳이 좋고 햇빛이 충분히 드는 배수가 잘되는 토양이 좋다. 아게라툼(*A. ageratum*), 피타미카(*A. ptarmica*) 등은 다른 종들에 비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나, 물에 잠길 정도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겨울동안 물에 잠기거나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는 생육이 어렵다. 키가 작은 종들과 은색의 털 같은 잎을 지니고, 고산성(*A. alpine*)종은 특히 배수가 잘되는 곳에 재배해야 하는데 보통 암석가든에 재배한다. 종자로 봄에 직파하거나 분주할 수 있다. 좋은 품종은 수명이 짧으므로 모주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분주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어떤 종들은 식물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분주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해충은 주로 진딧물과 응애 피해가 있고 흰가루병에 유의해야 하지만 워낙 강한 식물이라 재배는 매우 쉬운 편이다.

우리의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귀공자 투구꽃 속(Genus Aconitum)

북반구에 주로 생육하는데 산악지대의 초지나 관목 덤불과 활엽수림 아래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100여종의 일년생 식물과 이년생 및 다년생 식물 속으로 대부분 구근 형태이나, 가끔 싹뿌리를 갖는 종류도 있다. 줄기는 곧게 서서 자라는 게 대부분이나 진뿔과 같이 가는 줄기가 다른 식물을 감고 오르는 종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손바닥 모양의 잎 모양이 있고, 어떤 것은 코스모스와 같이 잘게 찢어진 것도 있다. 잎 전체는 신장형에서 원형 혹은 난형까지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짙은 녹색 잎이며, 대부분 5~10cm 길이다. 꽃은 로마 병사들의 투구와 같이 생긴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2.5~5cm로 꽃이 큰 편이고 많은 꽃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종류이다. 꽃들은 총상의 꽃차례나 원주 꽃차례에서 나오며 꽃대의 길이는 보통 30~60cm로 잎의 위쪽에 있다. 꽃은 꽃받침이 꽃잎처럼 보이는데 5개로 갈라져 있다. 뒤쪽의 것은 모자 같고 앞쪽의 것은 부리처럼 튀어나왔다. 가운데 것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고, 밑의 것은 긴 타원형이며 앞으로 비스듬히 나온다. 꽃잎은 2개이며 뒤쪽의 꽃받침 속 들어 있다. 열매는 콩깍지 모양이다. 주로 정원의 활엽수 아래가 이상적이며 줄기를 감아 올라가는 종들은 줄기의 지지를 위해 관목 사이에서 기른다. 꽃꽂이 용으로 매우 좋은데 잎의 접촉 시 간혹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먹었을 경우 맹독성으로 주의해야 한다. 조선시대에 사약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맹독성이지만 한방에서는 중요한 약재로도 이용된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 백두산까지도 분포하며 우리의 자생종도 앞으로 많이 이용되길 권장한다. 원래는 시원하고 습기가 있는 산 정상부근과 산지의 개울가 습기가 있는 비옥한 반 그늘 토양에서 잘 자라지만 대부분의 토양과 햇빛이 많은 곳에도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용성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육종의 소재로도 유망하다. 일반적으로 꽃이 크고 줄기에 많은 꽃이 피므로 지주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번식방법은 가을 혹은 이른 봄에 모판에 파종하고 꽃피는 시간까지는 2~3년이 걸린다. 그러나 식물의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약 3년에 한번씩 가을이나 겨울에 분주를 해주면 좋다. 다만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뿌리썩음병이 발병하기 쉽고 진딧물과 선충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G



투구꽃 속(ACONITUM)

겨울에 더욱 아름답고 따스한 말채나무류(Cornus)

잎이 떨어진 앙상한 나무가 예쁘다고 하면 믿을까요? 노란 나무, 붉은 나무가 커다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모습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 호에는 무리 지어 겨울에도 멋스럽게 자리한 말채나무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이드가든에서 도움주셨습니다.

글 제이드가든 매니저 노희은
사진 제이드가든 노희은, 김종근, 권순식

추운 날씨에 수목원을 찾은 분께서 “겨울에 수목원에 오니 다양한 나무들의 수형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는 말씀을 하셨다.

겨울에 수목원을 찾은 분들은 썰렁한 겨울풍경에 실망하기 쉬운데 겨울에 잎을 떨구고 내년 봄을 준비하는 식물들의 기특한 모습과 더불어 겨울 수목원의 묘미를 발견한 그의 기쁨이 그대로 가드너에게 전달되었다.

겨울에 더욱 뚜렷해지는 식물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가지의 색깔을 지닌 식물들은 하얀 눈과 함께 겨울정원의 주인공이 된다.

작년 겨울에 방송되었던 인기 드라마를 봐도 가드너의 눈에는 배우들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멋진 남자주인공이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도 가드너의 눈에는 겨울에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말채나무류들이 더욱 반갑다.



Cornus alba 'Kesselringii' Photo by 김종근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빙송첩채)



영국 세빌가든(Savill Garden) 원타가든 내 말채나무류 식재 사례 Photo by 김종근



Cornus sericea 'Flaviramea' Photo by 김종근



Cornus alba 'Elegantissima' Photo by 김종근

금노랑말채나무 *Cornus sericea* 'Flaviramea'
Photo by 노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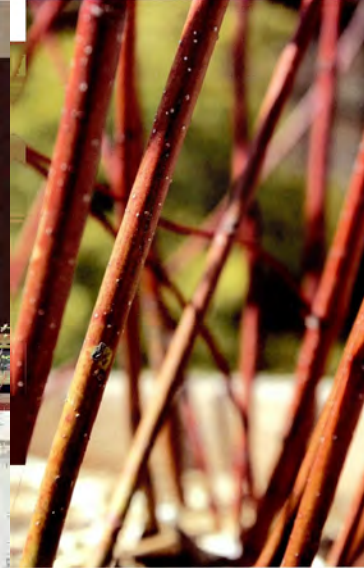
금노랑 말채나무를 근접촬영한 모습
Photo by 노회은



황금힐말채나무 *Cornus alba* 'Aurea'
Photo by 노회은



근접촬영한 황금힐말채나무
Photo by 노회은



“

겨울에 특히 아름다운 말채나무류는
차가운 겨울에 뜨거운 사랑얘기를 이끌어 가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모습과 닮았다.

”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토기형 화분에 식재된 말채나무 품종들은 다른 계절에도 아름다운 잎과 꽃을 뽐내지만 겨울에 특히 더 아름답다. 차가운 겨울에 뜨거운 사랑얘기를 이끌어 가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모습과 닮았다. 층층나무과(科)의 말채나무류들은 독특한 수피의 색깔 덕분에 겨울에 특히 더 아름답다. 그래서 가든문화가 오래 전부터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겨울정원(Winter Garden)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삼목을 통해 증식한 어린 가지들을 겨울정원(Winter Garden) 밖으로 옮겨 놓으니 한층 더 운치 있으며 이른 봄까지 다소 부족한 겨울풍경에 큰 힘이 된다.

흰눈이 내리면 하얀색을 배경으로 수피의 색깔이 더욱 또렷이 나타난다. 또한 말채나무류는 1년생의 가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른봄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지상부에서 강하게 전정을 해주고 풍부한 거름 살포를 통한 양분공급이 이루어져야 매년 아름다운 가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왕성한 번식성을 이용하여, 잘라낸 가지들을 주변에 직삽하면 더욱 풍성한 정원을 기대할 수 있다.

차갑게 고요한 겨울정원에서 파스한 빛을 지닌 식물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가슴속에는 봄이 먼저 찾아 올 것이다. G

Cornus



회양목 화단 내에 식재된 말채나무류 Photo by 김종근



동선 주변 사면에 교차 식재된 말채나무류 Photo by 권순식



Cornus sericea



Cornus alba 'Aurea'

아낌없이 주는나무 소나무

글·정리 가든인 편집팀

소나무, 고고하고 기품 있는 나무, 떼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나무. 한마디로 정이 가는 나무다. 추억이 대롱대롱 가지마다 매달려 있고, 애기보파리 한 개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만큼 소나무는 우리에게 가깝고도 정겹다. 어떤 이는 노래로 어떤 이는 그림으로, 어떤 이는 추억으로 소나무를 만났으리라.

몇 년 전만 해도 소나무는 생활필수품으로 집안 곳곳에 자리했었다. 뿌리는 송이와 복령을 키워냈고, 줄기는 목재로 가지(삭정)는 뿔감으로 송화는 약으로, 솔잎

은 송편을 만나고 송엽주를 키워냈다. 그것도 모자랐나보다. 말라 떨어진 솔잎은 불쏘시개로 은근하고 독심있는 불기운을 만들어내고, 장작은 활활 타올라 한겨울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지 않았던가! 정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놓은 소나무, 아, 그라운 소나무. 세월이 흘러 소나무의 쓰임새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추억만은 뻗속 깊이 새겨있다. 든실한 가지에 그네를 만들어

창공을 날았고, 거북의 등껍데기 같은 나무껍질은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만지면 놀랐던 그 시절의 소나무, 지금도 그 소나무 변함없건만 찾는 이가 없으니, 그저 나무로 구나. 알아보자, 온몸을 내어준 소나무를 살펴보자. 그저 만만한 나무였던 소나무의 진면을 알아봐야겠다. 먼지 유래를 살펴보면,

유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나무 소나무. 줄기가 붉어 적송이란 이름을 얻고, 여인의 몸매를 연상케 해 여송, 미인송이란 이름으로 만나고, 육지에 많이 자란다하여 육송이라 칭하게 된 소나무.

소나무란 우리말 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솔은 '으뜸'의 뜻인 '수리'에서 나왔다. 즉, 나무 중의 나무, 최고의 나무라는 뜻이다. 소나무류를 통틀어 한자로 솔(松)이라 하는데, 벼슬이 있는 나무라는 뜻의 '송'이라 한다. 이는 중국 진시황제가 비를 피하게 해준 나무에게 공작(公鵲)이라는 벼슬을 내렸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소나무의 학명은 피누스 덴시폴로라(*Pinus densillora*)이다. 한국, 일본이 원산지다. 소나무 속을 통틀어 부르는 리틴어 피누스(Pinus)는 켈트어 'Pin(산)'에서 유래되었다.

사람들은 소나무의 꽃이 없는 줄 안다. 혹은 몇 년에 한번 귀하게 퍼서 눈에 안 띄는 줄 안다. 소나무 꽃은 '송화'다. 송화가루는 예부터 약재로 널리 애용됐다. 송화라는 이름처럼 꽃이다. 곤충이나 새 등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바람

소나무의 구조

꽃(송화)

암꽃과 수꽃이 함께 달린다. 새 순 끝에 붉게 달리는 꽃이 암꽃이다. 암꽃은 꽃가루받이가 끝나면 열매가 된다. 아주 작은 송방울 모양으로 새순 아래 노랗게 층층이 달리는 것이 수꽃이다.



열매(송방울)

보통 송방울 한 개에는 200여개 저어도의 씨앗이 들어있다. 송방울은 다 자라는데 2년이 걸리며 꽃가루받이가 끝나고 진행된다.

뿌리

등산길 등에 구불구불 울퉁불퉁 드러나 있는 소나무의 뿌리를 많이 봤을 것이다. 약이나 공예품으로 쓰인다.

줄기

나무껍질과 목재부분이 있다. 그 사이에 부름켜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부분이 있고, 목재부분에는 나이테와 양분, 물의 이동통로인 관다발이 있다. 소나무는 첫물관이다. 심재(목재부분의 안쪽)는 오래 되어 죽은 세포에 송진과 타닌 등이 섞여 짙은 색을 띤다. 번재(목재부분의 바깥쪽)라 한다. 세포가 살아 있다. 색이 옅고 껍질은 거북등 모양으로 갈라진다.



안개가 자욱하니 멋스럽다.

(상) 근접촬영한 사진. 솔잎이 자세히 보인다.
(하) 가지의 형세. 소나무 가지는 굵은 모양으로 옆으로 퍼져나간다.

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름하여 품매화인 것이다. 바람부는 봄날 송화는 가루를 날려보낸다. 우리 예전 불청객으로 집안에 찾아온다. 노란 가루가 뿌옇게 앉은 것을 집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은 송화가루다. 옛 말에 굵은 소나무가 조상묘를 지키는 말이 있다. 반듯반듯 자란 소나무는 어디로 갔을까? 당연 목재로 변신했다. 소나무의 모양은 여러 가



거북등 처럼 딱딱 갈라진 소나무껍질

어린소나무, 겹질이 만들어지는 모습

서리가 싹포시 앉은 솔잎

소나무의 모습

솔잎근처에 솔방울이 달렸다. 서리와 솔잎의 색이 엷소련다.

소나무와 같은 속	잣나무	한국소나무(Korea Pine)로 불린다. 우리나라 중부 이북에서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걸쳐 자란다. 열매 속에 잣이 열린다. 바늘잎이 5장씩 모여달리고 줄기가 겹다.
	곰솔	바닷가에 주로 자라 해송이라 부른다. 줄기가 굵다. 소나무와 구별이 가장 어려운 나무다. 소나무처럼 바늘잎이 2장씩 달린다.
	리기다	미국이 고향이다. 잎이 3장씩 달리고 줄기에도 잎이 많이 난다. 일반적인 소나무에 비해 곧게 자라고 솔잎이 역세고 크다.
	백송	중국이 고향이다. 줄기에 흰빛이 돌아서 백송이라고 부른다. 잎은 3장씩 달린다.
소나무와 다른 속	전나무	소나무과에 속한다. 속(Pinus)이 아닌 다른 나무로 전체적인 모습, 잎 모양, 솔방울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구상나무	잎이 빗처럼 가지런하며 크리스마스트리로 많이 쓰인다. 전나무속(Abies)의 전나무와 구상나무 등이 있다. 전나무는 흔히 전나무라고 부르며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다.

가든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식물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들의 진솔한 얘기, 재밌는 얘기, 정보가 있는 얘기 등을 저희 가든인 편집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와 기사가 실린 월간 가든인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권에 있는 주소와 번호로 연락가능)

자다. 곧게 자란 금강송, 정원수로 인정받은 구부러진 반송, 줄기가 아래 처져 멋스럽고 개성있는 처진송, 지역에 따라 지형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다. 비옥하고 사람의 왕래가 적으면 곧고 강하게 자라고, 척박하고 건조하면 작고 더디게 자란다. 주변에 경쟁할 나무가 없으면 구부러져 멋스럽게 자란다. 기후에 맞게 청원수로, 목재로 심지어 분재로 활용된다. 남대문이나 사찰에 쓰인 소나무가 금강송이다. 소나무와 비슷해 헛갈리는 나무로 잣나무, 곰솔, 리기다나무, 백송 등이 있다. 앞으로 100년 후면 한반도에 소나무가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기후가 올라간 게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들

에서도 잘 자라는 참나무 같은 음수들이 더 높이 자라서 햇빛을 가리게 되는 원인이 크다. 씨앗이 가벼워 잘 날아가는 소나무는 숲속 빈 터에 먼저 자리잡는다. 소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면 반드시 햇빛을 받아야만 하는 양수인 나무인데, 빨리 자라는 나무에 점차 밀려나 살 곳을 잃게 된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숲의 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소나무 숲이 천이현상으로 서어나무, 참나무 숲 등으로 변해 가는 게 현실이다.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추운 겨울, 땀방울 바람까지 더해져 추위가 매서운 날 소나무는 어떻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사는 걸까? 소나무 잎에는 지방질이 많다. 겨울이 되면 그 양이 더욱 많아져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외부 추위를 막는 역할을 해준다. 더욱이 찬 기운이 드나드는 공기구멍 주변은 두꺼운 세포벽이 있고 바깥은 두터운 왁스로 덮여 있어 물의 증발과 잎이 어는 것을 막아 준다.

소나무가 태어난 날

지구상에 소나무류가 처음 나타난 것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기다. 1억 70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후 온대지역의 고원이나 산의 경사면을 중심으로 꾸준히 퍼져나갔다. 제4기 빙하기엔 대부분의 종들이 죽는 과정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중생대 백악기(약 1억 4400만 년 ~ 6500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발견된 소나무류 화석은 오늘날의 소나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백악기의 나무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나무라 할 수 있다. 긴긴 세월 모질게도 살아온 소나무가 앞으로 또 이 지구상에 영원히 살아갈 바래본다.

소나무는?

식물은 크게 종자식물과 양치식물로 나뉜다. 소나무는 씨앗이 열리는 종자식물이다. 종자식물은 또 속씨식물과 겉씨식물로 나뉜다. 소나무는 씨앗이 씨방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겉씨식물에 속한다. 겉씨식물은 씨앗이 씨방에 싸여 있는 속씨식물보다 덜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겉씨식물로는 은행나무과, 소나무과, 측백나무과, 낙우송과, 주목과 등이 있는데 소나무는 소나무과 나무다.

세계의 소나무류는 전세계적으로 100여 종류가 있다. 대부분 늘푸른나무이며 큰나무다. 간혹 작은나무도 있다. 소나무류 중에서 머쿠스소나무 한 종류만 빼고는 모두 북반구에서 자란다. 북쪽극지방에서부터 남쪽 북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소나무는 우리나라, 중국 동북지방, 산둥반도, 일본에서 자란다. 우리나라에서 분포면적이 가장 넓은 소나무는 적송이다. 남쪽으로는 한라산에서 백두산, 동서로는 울릉도에서 백령도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 산의 높이에 따라서는 한라산 같은 난대지방에서는 해발고도 1,800m 정도까지 자라지만, 북부 고산지방은 1,000m 이상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발고도 1~1,300m에서 볼 수 있다.

이상 검색한 자료로 소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관심없었던 소나무, 다방면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함부로 벌목도 안되고, 예쁘다고 허락없이 정원수로 데려오지도 말자. 우리의 정서랑 너무나도 잘 어울린 소나무가 같이같이 천대만대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래본다. **Q**

경기도 광주에 자리 잡은 꽃향기 가득한 과수정원 김준식(65)

2009년 본격적으로 정원을 조성한 김준식님은 꽃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주말마다 꽃시장에서 한 두종씩 사다가 정원을 만들었다고 한다.



글·사진 우정아
경기조경대학 강사, 가든디자이너



꽃들이 사라진 겨울정원은 한가하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김준식씨의 정원은 약 200여평(660m²)에 천도복숭아, 보리수, 포도, 모과, 대추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블루베리, 사과나무 등의 과실수와 밤나무, 은행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백송, 섬잣나무, 목련, 수수꽃다리, 능소화, 장미, 철쭉, 백합, 국화, 수선화, 작약, 양귀비, 클레마티스(으아리) 등, 약 170여종이 식재되어 있다.

서울 도심에서도 주택 생활을 하고 정원을 조성해서 생활한 주인공은 수도권 아파트로 이사한 뒤, 답답함을 견디기 어려워 2004년 터를 잡았다. 꽃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꽃 시장에서 한 두 개씩 사다가 식물을 식재하고 주말마다 관리하다가, 2009년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하였다고 한다.



정원이 선물하는 소중한 인연들

정원을 조성하면서 부부가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먼저 정원에 들러 식물들의 안부를 물으며, 돌봐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 정원을 한 바퀴 다 돌고나서야 집 안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한다.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의 시작도 정원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비롯된다고 한다. 그리고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밴드를 구성해 주말이면 정원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고 가든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식물을 교환하기도 한다고 한다.



정원에 필요한 소품을 직접 만들고 있는 김준식님



침문으로 들어가는 계단과 양쪽에 조성된 화단



상고려문 조형이 조각상과 잘 어울린다.

동네에서는 꽃이 가득한 집으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다고 한다. 특히 장미의 계절에는 매일 손님을 치르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 수고로움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아내가 있어 고맙다는 주인장의 미소에 사랑이 가득하다.

주인장의 식물관리 대장

식물의 구입한 날짜와 구입처, 현재의 모습 등을 기록해 놓은 식물 관리 대장에는 170여종의 식물이 기재되어 있다. **G**

구분	식물명	구입처	구입일	비고
1	장미	가정	2010.10.10	
2	장미	가정	2010.10.10	
3	장미	가정	2010.10.10	
4	장미	가정	2010.10.10	
5	장미	가정	2010.10.10	
6	장미	가정	2010.10.10	
7	장미	가정	2010.10.10	
8	장미	가정	2010.10.10	
9	장미	가정	2010.10.10	
10	장미	가정	2010.10.10	
11	장미	가정	2010.10.10	
12	장미	가정	2010.10.10	
13	장미	가정	2010.10.10	
14	장미	가정	2010.10.10	
15	장미	가정	2010.10.10	
16	장미	가정	2010.10.10	
17	장미	가정	2010.10.10	
18	장미	가정	2010.10.10	
19	장미	가정	2010.10.10	
20	장미	가정	2010.10.10	
21	장미	가정	2010.10.10	
22	장미	가정	2010.10.10	
23	장미	가정	2010.10.10	
24	장미	가정	2010.10.10	
25	장미	가정	2010.10.10	
26	장미	가정	2010.10.10	
27	장미	가정	2010.10.10	
28	장미	가정	2010.10.10	
29	장미	가정	2010.10.10	
30	장미	가정	2010.10.10	
31	장미	가정	2010.10.10	
32	장미	가정	2010.10.10	
33	장미	가정	2010.10.10	
34	장미	가정	2010.10.10	
35	장미	가정	2010.10.10	
36	장미	가정	2010.10.10	
37	장미	가정	2010.10.10	
38	장미	가정	2010.10.10	
39	장미	가정	2010.10.10	
40	장미	가정	2010.10.10	
41	장미	가정	2010.10.10	
42	장미	가정	2010.10.10	
43	장미	가정	2010.10.10	
44	장미	가정	2010.10.10	
45	장미	가정	2010.10.10	
46	장미	가정	2010.10.10	
47	장미	가정	2010.10.10	
48	장미	가정	2010.10.10	
49	장미	가정	2010.10.10	
50	장미	가정	2010.10.10	
51	장미	가정	2010.10.10	
52	장미	가정	2010.10.10	
53	장미	가정	2010.10.10	
54	장미	가정	2010.10.10	
55	장미	가정	2010.10.10	
56	장미	가정	2010.10.10	
57	장미	가정	2010.10.10	
58	장미	가정	2010.10.10	
59	장미	가정	2010.10.10	
60	장미	가정	2010.10.10	
61	장미	가정	2010.10.10	
62	장미	가정	2010.10.10	
63	장미	가정	2010.10.10	
64	장미	가정	2010.10.10	
65	장미	가정	2010.10.10	
66	장미	가정	2010.10.10	
67	장미	가정	2010.10.10	
68	장미	가정	2010.10.10	
69	장미	가정	2010.10.10	
70	장미	가정	2010.10.10	
71	장미	가정	2010.10.10	
72	장미	가정	2010.10.10	
73	장미	가정	2010.10.10	
74	장미	가정	2010.10.10	
75	장미	가정	2010.10.10	
76	장미	가정	2010.10.10	
77	장미	가정	2010.10.10	
78	장미	가정	2010.10.10	
79	장미	가정	2010.10.10	
80	장미	가정	2010.10.10	
81	장미	가정	2010.10.10	
82	장미	가정	2010.10.10	
83	장미	가정	2010.10.10	
84	장미	가정	2010.10.10	
85	장미	가정	2010.10.10	
86	장미	가정	2010.10.10	
87	장미	가정	2010.10.10	
88	장미	가정	2010.10.10	
89	장미	가정	2010.10.10	
90	장미	가정	2010.10.10	
91	장미	가정	2010.10.10	
92	장미	가정	2010.10.10	
93	장미	가정	2010.10.10	
94	장미	가정	2010.10.10	
95	장미	가정	2010.10.10	
96	장미	가정	2010.10.10	
97	장미	가정	2010.10.10	
98	장미	가정	2010.10.10	
99	장미	가정	2010.10.10	
100	장미	가정	2010.10.10	



미국 가든미디어 트렌드 보고

2014년 가드닝 키워드 "균형 (Balance)"

글·사진 황주리 기자

2014년도 가드닝은 균형에서 시작해 균형으로 끝날 것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의 삶을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웰빙을 넘어 힐링인 것이다. 단순히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자

연으로 나가는 자체를 원한다. 가든을 만들고 야외에서 생활하는 즉, 자연의 일부이기를 말이다.

미국 가든 미디어 그룹(Garden Media Group)이 2014년 가든 트렌드 핵심 리포트를 냈다. 핵심 리포트에는 2014년 가드닝 습관에 영향을 줄 12가지 요소들이 소개되었다.

2014년도 가드닝은 균형에서 시작해서 균형으로 끝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드디어 자연 속에서의 삶을 진정한 휴식이라고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좋은 것 먹고 잘 사는 '웰빙'을 넘어 자연과 함께 더불어 '힐링'하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은 '집을 나가서' 자연과 함께 해이지만 진정한 휴식을 느낀다고 표현한다. 심지어는 자연에게 단순히 평온한 오아시스의 역할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사회 허브역할을 해줄길 원한다.

가든 미디어 그룹은 '소비자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는 '원예분야에서의 일곱 가지 큰 변화'와 '2014년 이후의 가드닝 습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했다.

'2014 가든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야외에서 보내는 레저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을 지나 '엑스테리어'인 가든을 꾸미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잔디에서 진행되는 각종 콘서트, 글램핑, 가든 파티 등의 사회적인 트렌드들은 가드닝 가구 및 액세서리 분야에서 특히 테이블보수, 야외상들리에, 가든아트, 새모이그릇 등 야외장식구 시장이 가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 가드닝 및 야외생활 시장은 2016년까지 약 연간 3.5%의 성장과 더불어, 약 2조 2천억 달러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년간 5천8백억대에 머물러 있던 북아메리카 시장 또한 적어도 2018년까지 연간 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가든 미디어 사장인 수잔 맥코이(Susan McCoy)는 "몇 년간 어

두었던 경제상황 속에서 한 줌의 햇빛이 비추는 것같은 기분이다."라고 표현했으며 이어 "경제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온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맥코이는 '사람들이 드디어 불황을 겪고 일어서 생활의 '균형'을 잡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경솔한 '마구자비'식의 소비는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해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위해, 더 신중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로 13번째 발간된 '가든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드디어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 정원을 가꾸는 법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또 이것이 얼마나 목적 있는 삶으로 그들을 이끄는지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했다.

2014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트위스트'가 있다면 단순히 야외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은 이제 '자궁'과 '시간'을 투자하여 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면서보다 적은 양의 탄소발자국을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든 미디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케이티 두보우(Katie Dubow)는 "2014년은 균형에서 시작해서 균형에서 끝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실외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 나무에 둘러 쌓인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싶어하기 시작하며 생활의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 평화롭고도 생산력 증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기술이 이끄는 치열한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급속한 가드닝 영역에서의 성장을 이끌고 있을까? 가든 미디어는 야외생활과 가정, 그리고 정원에서의 녹색생활 추구를 위한 트렌드를 정리했다.

2014년

10가지 가드닝습관

핵심 키워드



1. 분쇄기술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것과 퇴비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재활용 기술의 화두로 자리잡았다. 가정에서 음식물을 직접 분쇄하는 기술영역이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2. 슈퍼푸드와 슈퍼모델

진정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가든인이라면 10대 슈퍼푸드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다. 10대 슈퍼푸드로는 견과류, 귀리, 밤콩, 블루베리, 오렌지, 요구르트, 브로콜리, 호박, 연어 그리고 케일이다. 여러 식품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이름만 크거나 대단한 효능을 자랑한다. 이처럼 먹거리가 새로운 레벨로 도약하여 식품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3. 정원을 마셔라

자기만의 정원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직접 갈고 발효하여 마시는 트렌드가 정착될 것이다. 얼마 전 직접 효소를 만드는 것이 유행을 탔는데, 이와 더불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나름의 '자급자족'의 프로슈머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보고다.

4. 정원에 자기만의 옷을 입혀라

정원에 자신만의 꾸미에 맞게 본인의 이니셜을 남기고 싶어 한다. 심지어는 특이한 포충기에서부터 새모이그릇까지 가지각색의 가든 패션이 뜨고 있다.

5. '벌'들에게 희망을

올해는 '벌'에게 잘해주는 것이 트렌드다. 환경적으로 깨어 있다는 소비자들에게 우선순위는 바로 '벌'에게 잘하기가 숙제일 것이다. 사람들은 벌들에게 더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분이 풍부한 꽃과 나무, 그리고 채소를 심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6. 문화를 심다.

'로컬'을 넘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원에 '세계'를 심고 있다. 지역에서 나는 작물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에서 들어온 작물을 본인의 정원에 심는 것이 유행을 타고 있다.

7. 색을 넘어서 모양으로

예전에는 어떠한 색의 꽃들을 어떻게 배열할까가 화두였다면, 이제는 색을 넘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또 나아가 어떠한 높이로 배열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모, 동그라미, 네모 모양의 꽃 배열이 올해 디자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8. 젊은이들이여 땅에서 더 굴러라

정말 놀라운 사실은 18세에서 34세의 남성들이, 정원을 관리하는 평균의 사람들보다 한 달간 약 10만 원 이상을 정원가꾸기에 더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주를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은 맥주를 제조하기 위해 홉을 기르고, 아이들을 흙에서 놀게 하기 위해 정원가꾸기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9. 싱크(Think)가든

식물은 사람을 더욱 똑똑하게 하며, 생산적이게 도와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인지한 현대인들은 사무실 내부, 학교 심지어는 병원에까지 실내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며 캠페인까지 진행하기 시작했다.

10. 손가락 가드닝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실제생활에서 식물을 심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통하여 가상(Virtual)세계에서도 식물을 심기 시작했다. Treeplanet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스마트폰 스크린을 통해 지구 어디든 손가락으로 지정하면, 실제로 봉사자들이 '내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에 가서 실존의 나무를 심어준다는 사실이 흥미진진하지 않은가? **G**



영원한 청춘, 순백의 아름다움

헤베 *Hebe*

'영원한 청춘, 순백의 아름다움' 이란 꽃말을 가진 헤베는 그리스 신화 '청춘의 여신' 이기도 하다. (제우스와 헤라사이의 막내딸)
질경이목 질경이과의 관목으로 쌍떡잎식물이다. 뉴질랜드 채텀섬이 원산지이며, 전 세계적으로 70~80종이 분포되어 있다. 서식지는 주로 해안가 주변이나 열대의 산악지대이다. 줄기는 20~50cm로 매우 낮으며, 옆으로 1m정도 퍼지는 포복성식물이다.
봄이 오기 시작하는 시기만 줄길 수 있는 헤베는 집안에서 가을 경우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면 좋다. 꽃은 흰색, 분홍, 보라, 진홍색으로 피며, 잎은 긴 타원형으로 끝부분이 뾰족하게 빠진다. 많은 정원과 공공장소에서 무리지어 심기도 하고, 해안지역의 해풍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도 심는다.



헤베키우기

질경이과라 질긴 생명력을 갖는 건가? 생명력이 길다. 노지에서 잘 자라는 헤베를 실내에서 키우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풍과 햇빛이 좋은 곳에 두면 된다. 반그늘에서도 잘 적응한다. 헤베는 쉽게 키울 수 있다. 물빠짐이 좋은 흙을 선택(일반적으로 배양토(7~5):마사토(5~3)해서 심으면 무난하게 적응해 잘 자란다. 잎이 풍성하고 거기에 꽃까지 피면, 한아름의 꽃다발을 받은 듯 풍성하다.
물은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준다.
헤베를 키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름나기다. 고온다습한 계절인 여름엔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평상시보다 통풍과 환기에 더 신경 써야 하며, 너무 뜨거운 햇빛은 피해야 한다. 꽃이 진 뒤 꺾꽂이하면 더 많은 헤베를 만날 것이다. G

글·사진 윤평섭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명예교수



토피아리의 유래와 실제

토피아리는 서양에서는 정원의 나무나 산울타리 같은 식물을 예술적으로 깎아서 기하학형이나 피라미드형, 동물형, 천체형, 기물형으로 만든 것을 관상하며, 동양에서는 수형을 다듬어서 분재나 정원수로 관상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하게 만들어져 정원의 품위를 알리고 있는 토피아리에 대해서 알아봤다.

토피아리(topiary)란 관상수의 수형을 다듬어서 만든 조각작품을 말한다. 서양에서는 토피아리(Topiary)라 하고, 동양에서는 수예(樹藝)(tree art, 또는 tree sculpture)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는 정원의 나무나 산울타리 같은 식물을 예술적으로 깎아서 기하학형이나 피라미드형, 동물형, 천체형, 기물형으로 만든 것을 관상하며, 동양에서는 수형을 다듬어서 분재나 정원수로 관상하는 것을 말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토피아리라는 개념은 생화나 건조화 플라스틱소재로 만든 조화에서부터 이끼나 과일, 열매, 너트(nut)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관상하는 것까지를 통틀어 토피아리라고 말하고 있다. 토피아리란 말은 로마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한다. 토피아리의 역사는 이집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들어와 프랑스를 경유하여 폴란드라는 나라를 거쳐 네덜란드로 전파되었다. 당시 영국의 왕자가 네덜란드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네덜란드에 살면서 토피아리에 매혹되었고, 영국으로 돌아가 왕실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전 영국에 보급되었다. 16세기 초 영국의 윌리엄과 네덜란드 출신인 Mary왕(1688~1702) 시대에 가장 많이 성행되었다고 하며 오늘날에는 영국의 전 유물인 것처럼 되었다.

토피아리를 만드는 방법은 인간의 눈썰미와 상상력으로 수목을 직접 다듬는 방법과, 직접 다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수형에 형틀(frame)을 만들어 씌운 후 다듬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나 후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형틀을 만드는 기술과 경비가 드는 단점이 있다.



명작 : 쇠라의 그랑드자트성의 일요일 오후와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Old Deaf School Park에 만들어진 쇠라의 「그랑드자트성의 일요일 오후」 작품이 토피아리로 제작된 전경



형틀을 만들고 이끼와 기타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타조 토피아리



수목나무를 전정하여 만든 기하학형과 기물형이 복합된 베르사이유 궁전의 토피아리



처음에는 피라칸타나 회양목을 가지고 만들었다. 후에 John Evelyn(1662)가 「Sylva」라는 책에 주목나무(Japanese yew)가 가장 좋다고 소개했고, 그 후 주목나무가 토피아리에 이용되는 전성기를 맞았다. 이것도 잠시 동안 유행하다가 18세기 초에 영국의 자연주의론자들에 의해 새로운 자연식 정원 철학이 등장하면서 토피아리 인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자연주의론자들은 토피아리가 너무 인공적이라 멀리하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토피아리를 즐겨 관상하였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다시 토피아리 인기가 상승했다. 이때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형태들이 개발되었고 별 모양이나 원형, 글자모양, 공작새모양이나 수탉, 개, 고양이 등과 아름다운 새 등을 만들어 관상하였다. 나아가서는 곰이나 사슴, 낙타, 코끼리, 당나귀, 산돼지, 뚝탄배 등을 만들어 관상하였다.



(좌) 로즈마리에 형틀을 씌워서 만들기 위한 토피아리, (우) 유진에 형틀을 씌워서 만들기 위한 토피아리



페튜니아와 이끼를 이용하여 만든 난쟁이와 집, 어린이, 나비 등을 만든 토피아리



(상) 형틀을 만들고 이끼를 이용하여 만든 물고래 토피아리, (하) 형틀 안을 수태로 채워 만든 동물형 토피아리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형틀을 만들어 사람 모양이나 백조, 거위, 비둘기, 독수리와 수탉, 새모양, 네모진 철판모양과 둥근 공모양의 기하학적 토피아리를 만들었다. 그 후 형틀 안을 꼭 채운 휴대용 토피아리가 만들어져 인기가 급속히 높아 졌다.

전정을 하여 만드는 토피아리 제작법

수목을 전정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수법이다. 향나무나 주목나무, 회양목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철사형틀을 씌워 만드는 토피아리 제작법

이 방법은 토피아리 제작이 서툰 사람들에게 권하는 방법으로, 철사로 동물모양이나 공모양, 새모양, 주전자모양, 피라미드모양 등으로 모형을 만들어 식물을 식재한다. 식재한



(상) 향나무를 전정하여 만든 새모양의 토피아리

나무에 틀을 씌워서 식물이 형틀 밖으로 자라면서 잘라내어 수형을 만드는 방법이다. 향나무나 주목나무, 회양목, 화백, 로즈마리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형틀 안을 채워서 만드는 토피아리 제작법

형틀 안을 수태나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를 채워서 꽃베고니아나 알터난테라 등을 식재하여 모자익한수법으로 동물형이나 기물형, 천체형 등을 다양한 색채로 식재하여 만든다. G



전정하여 만든 양호랑가시나무의 반원통형 토피아리



화백을 이용하여 형틀을 씌워 만든 동물형 토피아리를 손질하는 모습

본격적인 채소 파종의 계절, 2월

'가드닝의 시작'의 계절은 언제일까? 식물들을 키우기 좋은 봄일까? 아니다. 봄이 식물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은 맞지만 본격적으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2월이다. 아직 추운 2월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니?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찬 바람을 막아주고 바깥보다 훨씬 따스한 베란다와 실내이기에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베란다 정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오히나씨



막 띄워가 버려진 거자새싹



글·사진 오히나
파워블로거 허브향 가득한 케럼네 화단
<http://blog.naver.com/e1512/>

나는 항상 2월 중순에서 말쑥이 되면 씨앗을 심으며 가드닝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2월초까지 한가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면, 2월 중순부터는 슬슬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지는데 웬만하면 일찍 심거나, 시기에 맞춰 심는 것이 성공적인 가드닝을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씨앗을 심는 것은 모두 2월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그건 아니다. 식물마다 성격이 달라서 추위에 강한 식물, 약한 식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의 성격에 맞춰서 씨앗을 심는 것이 좋다. 2월에 심기 좋은 식물은 주로 채소 종류인데 잎채소와 열매채소는 2월에 심는 것이 수월하게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청경채, 치커리와 같은 잎채소의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도 발아를 잘하는 편이고,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장소라면 서늘한 기온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다. 때문에 2월에 씨앗을 심는 것이 빨리 심는 만큼 수확을 앞당길 수 있어 좋다.

잎채소를 키우는데 가장 골치를 썩게 되는 것이 바로 병충해 문제다. 일찍 심으면 피해가 가장 심한 한여름을 피하여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월에 심는 것은 베란다에서 키운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야외에서 텃밭을 가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에 심어야 할 것이다.

무, 당근과 같은 뿌리채소도 베란다에서 가꿀 경우, 2월에 씨앗을 심어도 되지만 햇볕이 부족하면 웃자람이 심하게 생길 수 있어 환경 여부를 잘 체크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열매채소의 씨앗을 2월에 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위에 약한 열매채소는 가을부터 시들여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등과 같은 가지과의 열매채소들은 모종을 키워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편이다. "나는 봄에 씨앗을 심어야지!" 하고 3~4월에 심었다가는 가을이 되기 전까지 열매가 달리는 모습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꽃이 피어 있는 토마토, 고추 모종이 나오는 5월이 되기까지 본잎 몇 장 겨우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대체 언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일까' 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이다.

물론 야외 텃밭에 키울 경우에는 기온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2월쯤에 씨앗을 심어 베란다에서 모종을 키워내거나 5월에 판매하는 모종을 구입하여 날씨가 따스해지는 시기에 텃밭에 옮겨 심는 것이

“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등의
가지과 열매채소는 모종을 키워내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므로 2월에 심는게 좋다.

”



올다. 하지만 베란다에서 키울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베란다는 텃밭보다 온도 변화가 크지 않고 오히려 가을부터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곳은 3~4월에 심어도 늦지 않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곳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 베란다는 '가을에서 겨울은 어떤 환경' 인지를 꼭 체크해 보아야 한다. 가을에서 겨울 동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온도가 꽤 높은 편이라면 늦게 심어도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가을에서 겨울이 꽤 춥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편이라면 씨앗을 너무 늦게 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모든 열매채소가 2월에 씨앗을 심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다. 각각의 열매채소들의 성격을 파악하여 씨앗을 심는 시기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과채소인 오이, 호박 등의 경우에는 빠르게 성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4월에 심어도 수확을 충분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코라와 같이 성장이 빠르고 추위에 심하게 약한 열매채소는 2월에 씨앗을 심으면 새싹이 약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3월말에서 4월초에 심는 것이 튼튼한 모종으로 키워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이처럼 채소마다 씨앗을 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잘 조절하면 분산시켜서 파종을 준비할 수 있다. 2월, 3월, 4월에는 각각 이런 식물을 심자고 월별로 먼저 정리하여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실내에서는 스탠드를 활용하자.

매해 씨앗을 심으며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햇빛과 온도이다. 겨울에도 베란다온도가 높은 곳이라면 상관 없지만, 대부분의 집은 2월이면 온도가 그리 높지 않을 시기여서 실내에서 씨앗을 심게 된다. 보일러를 충분히 트는 곳이라면 별로 온도 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우리 집의 경우에는 틀지 않아도 실내가 훈훈한 편이어서 많이 틀지 않는다.



다. 하지만 보일러를 자주 트는 집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은 후 위에 투명한 랩을 씌워주었다. 식물이 발아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 뿐만 아니라 습도도 꽤 중요한데 랩을 씌우면 온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습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추가로 스탠드를 준비하여 조명을 켜준다. 스탠드는 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족한 햇빛을 보충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스탠드 조명이 햇빛을 100% 채워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씨앗을 심은 후 바로 가까이에 조명을 켜기 때문에 천장의 현광등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 지난번에 바람개비 사랑초의 꽃을 피우기 위해 스탠드 조명을 활용했는데 마찬가지로 새싹이 덜 웃자라게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식물을 키우는데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가끔은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도 가드닝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작년에 꽃을 피웠던 얇은뱅이토마토의 꽃

작년에는 2월말에 얇은뱅이토마토의 씨앗을 심기는 했으나 결핵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 시기에 분갈이를 해주지 못해 모종의 성장이 많이 뒤처져 버렸다. 얇은뱅이토마토는 방울토마토보다 더 늦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 키우기 적당한 품종이다. 남들은 여름이 되자 방울토마토며 얇은뱅이토마토를 신나게 수확하고 있다는데, 우리 집은 꽃도 피우지 않으니 이번에는 수확은커녕 꽃피우기도 글렀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다.

토마토 종류는 추위도 꽃을 피우지 않지만 너무 온도가 높아도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뎠던 여름의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자 노란색 꽃을 활짝 피워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금새 날씨가 추워져서 열매까지 열리지는 못했지만 토마토 종류를 키우는데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제때 씨앗을 심는 것과 제때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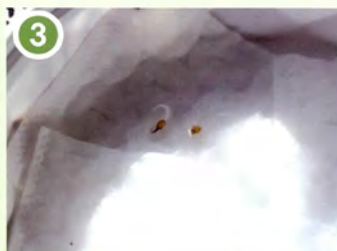
얇은뱅이토마토 씨앗 심기



1. 2월말쯤 얇은뱅이토마토의 씨앗을 준비하여 솜 위에 얹어주었다. 빠른 발아를 위해 솜을 이용하여 파종하기로 하였다.



2. 솜 위에 물을 촉촉하게 뿌려준다. 솜에 씨앗을 파종할 경우 물을 더 촉촉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발아에 유리하다.



3. 토마토 종류는 어두운 곳에서 발아하는 암 발아 식물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두거나 신문지를 덮어 따스한 곳에 놓아준다. 화창함이 마르지 않게 관리하다 보니 씨앗에서 뿌리가 나왔다.



4. 뿌리가 난 씨앗은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흙에 바로 심어준다. 새싹이 나온 후에 옮기려고 하면 뿌리가 솜에 엉킬 수 있고 흙에 옮겨 심었을 때 흙에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생긴다.



5. 흙에 심고 촉촉하게 물을 주며 며칠을 기다리니 예쁘고 튼튼한 새싹이 올라왔다. 새싹이 웃자라지 않게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거나 임시로 스탠드 조명을 켜어주도록 한다.



6. 본 잎이 나오고 피토프트가 많이 작게 느껴지자 조금 더 큰 플라스틱 용기에 임시로 옮겨 심어 주었다. 분갈이를 여러 번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바로 큰 곳에 옮겨주도록 하고, 여러 번 옮겨 심을 생각이라면 늦지 않게 옮겨 심어주도록 하자.

암의 예방과 당뇨·비만에 좋은 호박



글·사진 안완식

안완식 씨드림 대표, 농학박사
한국토종연구회의 고문, 슬로푸드코리아
생물다양성위원장, 맛의방주 위원회 위원장

호박처럼 이용도가 좋은채소도 없을것이다. 반찬으로 떡으로
차로 즙으로...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이나 호박 종류도 많다.
긴호박, 둥근호박, 뿔호박, 청호박, 참호박,
특히 당뇨예방과 비만에 효과가 좋고 암의 예방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호박을 파헤쳐보자.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 두발 쪽 뻗고 앉아 먹는 달큰하고 따끈
따끈한 호박죽 한 그릇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호박의 원산지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하는 중남미이며 11종으로 분
류된다. 그 중 재배종은 5종인데, 식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동
양계호박, 서양계호박과 페포계호박 등 3종이다. 그 외 여러해살이
인 흑종호박은 오이의 대목으로, 믹스타호박은 종자이용이나 관상
용으로도 쓰인다.

동양계호박(*C. moschata*)은 우리나라에서 애호박으로 많이 이용
한다. 늙은 호박은 약용이나 호박고지 등으로도 이용하는 넝쿨성의
보통호박이다. 온대북부로부터 열대아시아의 다습지대까지 넓은 지
역에서 채소용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재배하여 왔다.

서양계호박(*C. maxima*)은 우리나라에서 단호박이라고 부르는 호
박이다. 페루, 볼리비아, 칠레의 고랭지의 건조지대가 기원지이다. 이
호박은 전분과 카로틴 함량이 높고 비타민D도 많아 영양가가 높다.
페포계호박(*C. pepo*)은 넝쿨이 없이 위로 곧게 자라면서 호박이 열
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애호박용으로 재배한다. 일반적으로
길쭉한 모양의 축성재배로 많이 심는 호박이다. 다른 종의 호박보다
서늘한 기후를 요구한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에서 많이 재배된다.

믹스타호박(*C. mixta*)은 과실의 머리 쪽이 굵은 모양을 하고 있
다. 이 호박은 처음에는 동양계호박에 포함되었으나 그 후 독립종
으로서 분리되었다. 흑종호박(*C. ficifolia*)은 멕시코시 교외 해발
2000~2400m의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숙근성이므로 한번 심으면 2~3년간 방치해도 수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호박의 전래에 대하여 최남선은 임진왜란 후에 고초 등과
함께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다고 했다. 이춘녕씨는 도입연도를 1605

년으로 추정하였다. 서양계호박인 단호박은 1920년대 이후 도입되었
다. 1955년에 도입된 페포계의 주키니(Zucchini)호박은 입목성으로
하우스재배에 적합하여 단경기 생산에 기여한 품종이다.

호박은 박과채소 중 가장 저온성이며 그 중에서도 페포계호박과 단
호박은 저온에 강하다. 암꽃의 분화는 자온단일에서 유기된다. 꽃이
피는 시간은 오전 3시 반~5시 사이에 시작되고, 오후 1시나 2시경
에 진다. 암꽃의 수정능력은 개화당일로 오전 4~6시가 최고가 된
다. 따라서 벌 등 매개곤충의 활동이 어려운 장마철에 애호박을 많
이 따려면-좋은 결실률을 얻기 위해서-가능한 아침 일찍 수꽃을 따
서 암꽃의 암술 위에 꽃가루를 묻혀주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꽃을 막아주어야 한다.

암의 예방과 치료

영양덩이러인 호박씨를 비롯해서 늙은 호박 속에는 특히 암을 예방
하는 작용과 항암효과가 있다. 늙은 호박은 과육이 황색이다. 이 황
색 혹은 주황색 과육 속에는 체내에 들어가는 비타민 A로 변하는
카로틴이 많으며, 과육의 색깔이 담황색인 것보다는 진한 황색일수
록 함량이 훨씬 높다. 황색야채는 폐암, 식도암, 위암, 방광암, 후두
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대장암은 서구인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도 서구식의 생활로 변함에 따라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다. 대
장암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변비이다. 변비가 계속되어 변이 대장 안
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에 좋은 대장균과 유산균이 죽고 좋지 않은
균들이 많이 번식하게 된다. 그로 인해 가스가 차게 되고 담즙을 분
해하여 발암물질을 만든다. 대장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섬유
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식물섬유는 변비를 막아서 장내의 좋은 균
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좋은 균은 식물섬유를 먹이로 하여 증식하
고, 유기산을 발생시키고 이 유기산이 장벽을 자극하여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통을 촉진해 준다. 식물섬유는 대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에 붙어 있는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시킨다. 호박은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호박은 양배추나 양상추보다 많은 식물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또 호박은 다른 채소에 비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여름철에는 잎과 줄기를 찌서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먹거나 찜으로 먹으면, 섬유질이 많아서 배변에 좋다. 꽃은 잎의 한 종류로, 양분이 농축돼 있다. 당분이 많고, 향이 강해서 맛도 좋고 보기도 그만이다. 호박꽃으로는 호박꽃볶음밥이나 호박꽃ջ, 호박꽃을 곁들인 양갈비구이가 제격이다. 또 어린 호박은 한여름철에 나물, 전, 찌개 등 다양한 반찬으로 식탁에 올라온다. 가을철에는 늙은 호박으로 죽, 김치, 범벅, 차 등을 해먹고, 중탕이나 말렸다가 떡을 해먹는 등 다양하게 섭취 할 수 있다.

산후 부기 빼는 효과

산후 부기가 있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늙은 호박이 권장된다. 이유는 호박이 갖는 특성 때문이다. 콩팥 기능이 나빠서 부종을 겪는 환자나 회복기의 환자가 호박죽이나 즙을 먹으면 좋다. 특히 호박즙은 산후 부기가 빠지지 않을 때 널리 애용된다. 호박을 먹으면 부기가 빠지는 이유는 호박 속에 들어있는 항이노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체내의 배노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콩팥에는 우리 몸의 수분량을 체크하는 센서가 있어서 소변량이 조절된다. 우리 몸속 수분 함량이 많다고 감지되면 항이노호르몬의 분비가 줄어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부기가 빠지는 효과가 있다. 산후 부기 조절을 위해 호박즙을 내릴 때는 이노작용이 있는 옥수수수염과 독소를 풀어주는 잔대를 함께 넣고 7~8시간 중탕하면 좋다.

당뇨, 비만, 회복기의 환자

호박의 성숙과는 잘 익을수록 단맛이 증가하는데 이는 익을수록 당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호박이 가진 당분은 소화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회복기의 환자에게도 아주 좋다. 또 호박은 당뇨병 환자나 풍뎡한 사람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열량이 쌀의 10분의 1정도로 낮고 지방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식품으로 좋다. 더욱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 E와 카로틴은 고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덩까지 있다.

두뇌발달 촉진작용, 고혈압, 아맹증

잘 익은 호박씨에는 머리를 좋게 하는 레시틴과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 잘 말려뒀다가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 까먹으면 좋다. 100년 전 일본에서는 아맹증, 각기병환자가 많아 서양으로부터 단 호박, 당근, 시금치 등을 적극 수입 보급시켰다고 한다. 호박씨가 혈압을 낮게 해준다는 연구도 있으며, 또 호박씨 속의 지방에는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리노레익산이 들어 있다. 춘충구제와 천식치료에도 쓰여 왔다. 호박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기 때문에 점막을 튼튼하게 하며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몸을 따뜻하게 하므로 냉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다. 이외에 기침이 심할 때 호박씨를 구워서 설탕이나 꿀과 섞어 먹으면 효과가 좋다. 젖이 부족한 산모가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전해지고 있다. 늙은 호박꼭지는 말려서 가루를 내어 벌꿀과 함께 섞어 먹으면 감기 예방은 물론 고질적인 기침에 좋다. 저장방법은 저온을 피하여 10~12.8℃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손상된다. 습도는 60~70% 정도이다. 집에서 보관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온이 좋으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호박의 민간요법〉

- **야맹증** : 늙은 호박의 과육에는 카로티노이드가 많다. 늙은 호박을 삶아먹으면 강장, 야맹증 등에 효과가 있다.
- **구충** : 회충 및 촌충에 특히 효과가 있다. 잎을 7~10시간쯤 그늘에 말린 다음 분말로 만들어 1일 차 스푼 하나를 양으로 하여 3회에 나누어 마시되 5~10일 계속 복용한다. 촌충 구제는 껍질을 벗긴 마른 호박씨를 쇠질구로 뺀은 다음 소량의 물을 넣고 크림처럼 만들어 어른은 60~80g, 어린이는 어른의 반량을 15~20분 이내에 마신다. 구충성분은 쿠쿠르비틴 등이며 독성과 부작용이 없으므로 임신부나 어린이들에게도 쓸 수 있다.
- **백일해** : 꼭지나 씨를 김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흑설탕을 넣고 잘 반죽하여 마시면 좋다. 풍알만 하게 환약을 만들어 3~5개쯤을 먹어도 효과가 있다.
- **젖이 잘 안 나올 때** : 산모가 붉은 호박씨를 30~50개쯤 까서 알맹이를 먹는다. 또한 물 0.18ℓ로 달여 이것을 식사 사이에 3회에 나누어 복용해도 좋다. 불면증도 호박을 먹으면 해소되고 또한 인후카타르에도 효과가 있다.
- **단독** : 호박을 으깨어 종이에 펼쳐 구부에 붙이면 효과가 있고 벌레에 쓰였을 때 잎이나 꽃을 따서 문지르면 효과가 있다.
- **중풍의 예방** : 호박을 상식하면 큰 효과가 있다.
- **가래와 기침** : 늙은 호박의 꼭지 부분을 손이 들어갈 만큼 둥글게 도려 낸 후 씨를 빼낸다. 마른 구기자 한 줌, 생강 일곱 쪽, 대추 한 줌과 감초 약간, 인삼 두 뿌리 정도를 넣고 한봉골을 한 컵 정도를 붓는다. 도려 낸 호박의 꼭지부분을 다시 맞추어 봉한다. 솥에 물을 약간 붓고 호박이 물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놓고 위에 호박을 올려놓는다. 손으로 누르면 약간 들어갈 정도로 잘 끓여서 익힌 다음 식힌 후에 호박을 잘게 쪼개서 삼베 헹겊으로 짜낸 물을 다시 한

번 끓인다. 식은 후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1일 2회로 식사 전과 저녁의 공복에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신다. 기침과 가래는 호박 세 개만 먹으면 완치된다.

■ **산후부종 및 당뇨병** : 호박을 삶아서 먹으면 소변을 잘 보고 부종이 없어진다.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에게도 좋다. 또 호박은 독극성 물질을 먹거나 마셔서 중독된 것을 풀어주는 해독효과가 뛰어나다.

■ **암 예방** : 진한 적황색의 호박을 자주 끓여 먹는다. 황색야채는 폐암, 식도암, 위암, 방광암, 후두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호박은 소화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허약하고 몸이 여윈 사람에게 간식으로 좋다. 회복기의 환자에게도 아주 좋다.

주요토종

재배의 역사가 가장 긴 동양계호박은 토질을 별로 가리지 않고 재배가 쉽다. 우리들의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채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품종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지역에 따라서 모양이나 색깔의 변화나 크기 또는 과육의 질 등 다양하다. 호박의 이름도 모양이나 색깔이나 용도 또는 육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붙여졌다. 모양에 따라서 긴호박, 납작호박, 뒤흔, 둥근호박, 큰호박으로 불렸으며, 색깔에 따라서는 청호박, 흑호박으로 그리고 지명에 따라서는 동두호박, 서울마디(시울다디)호박, 울릉호박으로 불렸다. 그 외에 동호박, 재래호박 또는 참호박 등으로 이름 붙였다. 지방에 따라 품종이 다양해서 평창군 평창읍의 떡호박, 진부의 뒤흔, 보성의 동두호박, 이밖에도 흑호박, 외호박, 참호박, 길게 생긴 지레호박, 큰호박이 있다. 또 늦가을 서리 내린 다음에 잘 익은 것을 따 솥에 찌먹으면 밤보다도 맛있는 단호박이 있다. 예부터 평창에서 재배해왔던 뒤흔호박은 네모난 뒷박 같은 느낌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다.



〈사례〉

임산부 부종 때는 청호박 : 몇 년 전 수원 남문 앞을 지나다가 노점 상 아주머니가 파는 파란 색의 납작한 청호박을 발견하여 3만원이 나 주고 샀지만, 정말로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청호박은 보통 긴 호박이나 둥근호박처럼 반찬이나 떡을 해 먹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약용으로 씬다.

나주 사는 김정남 아주머니는 10여 년 전 함평에 있는 일갓집에 갔다가 늙어도 곱이 새파란 이 청호박씨를 얻어다 심기 시작했다고 한다. 늙어도 곱이 새파랗고 납작하게 생긴 이 청호박은 여인네 산후조리에 특효다. 대부분의 호박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보통 비슷하여 그 효능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깔이나 모양이 특이할 때 그 효능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참호박과 약호박 : 봉평의 이효석 생가근처인 원길 2리 새터말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황정순 아주머니는 돼지우리 지붕 위에 메달린 탐스럽고 탄탄하게 생긴 짙은 녹색을 띤 있는 호박을 가리키며 '저것이 약호박이고 이것이 참호박이지요.' 라고 설명했다. 색깔로 보아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모양을 보니 구별된다. 약호박은 약간 납작한 가로 20cm에 세로 13cm 정도이고, 참호박은 가로 20cm에 세로 30cm 내외로 참호박이 약호박보다 꽤 큰 편이다. 또 참호박의 잎이 약호박의 잎보다 2~3배는 굵히 될 정도로 크다.

몇 포기만 심어도 호박무집, 호박씨개로 여름 내내 반찬을 할 수 있고, 보리밥에 호박잎쌈이 좋아서 계속 심어왔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아낙네가 출산 후 부기를 내리고자 할 때 꼭 약호박을 쓴다고 한다. **찌 먹는 단호박 :** 미식축구공을 수직으로 눌러 놓은 모양과 비슷한

단호박은, 겉질이 혹처럼 트실트실한 것도 있고 매끈한 것도 있다. 잘 익은 단호박을 반으로 갈라 씨를 빼고 술에 찜통을 얹어 푹 찌면 그 맛이 밤보다 훨씬 좋다. 단호박은 페루, 볼리비아, 북아르헨티나의 고원지대가 그 원산지로 과육이 섬세한 분절이기 때문에 잘 익은 것을 익히면 밤이나 밤고구마와 같이 된다. 반대로 덜 성숙한 것은 물기가 많고 덜 달아 씹는 맛이 없다.

이 단호박을 포천군 화현면 화현 2리 양지동에 사는 임정준 할아버지의 땅에서 발견했다. 꼭 미식축구공과 비슷한 모양이다. 임정준 씨는 그곳에서 몇 대를 걸쳐 살았는데 물려받은 종자들을 조금씩 심어왔다고 한다. 이 단호박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단호박보다 맛이 있었다.

대화리 떡호박 : 영동고속도로의 장평인터체인지에서 영월 쪽으로 약 10km 지점인 평창군 대화면 대화 3리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아온 김문기 씨는 떡호박 두 가지와 약호박, 참호박을 오랫동안 재배해 왔다. 햅쌀가루에 떡호박을 버무리 시루에 넣고 가마솥에 얹어 장작 불로 찌면 오랜만에 집에 온 아이들이 꽤나 좋아했다고 한다. 대화리에서는 예로부터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나면 서리 맞은 다음 따놓은 떡호박을 찌거나, 말려둔 호박고지로 호박떡을 만들어 손님들을 대접했다고 한다. 떡호박은 종자 표면에 광택이 있고 보통의 호박씨보다 크면서 더 통통하다. 또 보통 호박보다 당질과 칼슘, 비타민 C의 함량이 높고 섬유소의 양도 1% 내외 들어 있어 육식에 의한 비만 방지에도 좋은 음식이다.

호박엿을 만드는 울릉호박 :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울릉도 저동에 살고 있던 한 농가에서 산에 호박을 계속해서 몇 포기 심었는

데 둥글고 커다랗게 열렸었다. 잘 익은 호박을 따서 죽을 수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 딸자식이 오기로 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한차례씩 다시 끓였다고 한다. 하지만 온다던 딸은 풍랑으로 오지 못하게 되었고 남아 있던 죽을 어머니가 모두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맛이 마치 옛처럼 달았다고 한다. 울릉도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던 이석구 씨가 들려준 울릉도 호박엿의 유래다. 울릉군 농촌지도소장으로 있던 김중대 씨가 전부터 전해내려 오던 호박엿을 개발·발전시켜 특산품으로 만들었다.

울릉도에 울릉호박이 들어간 것은 울릉도를 개척하던 때인 조선 고종 19년(1882) 경으로, 구황을 목적으로 물에서 들어간 것이 그 처음이자 시작이었다. 울릉도 특종호박은 크기가 거의 20kg에 달하며, 둥글고 성숙 후에도 녹색의 반점을 많이 띤다. 성숙 후에 잘라보면 속이 꽉 차 있고 진한 주황색의 살이 두껍다. 특히 일반 호박보다 당질이 높고 칼륨, 인, 철분 등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A의 함량도 일반 호박류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치가 매우 높다.

평창의 되호박 : 네모난 뒷바깥은 느낌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다. 되호박은 산기슭이나 밭둑에 몇 포기 심으면 많이 달린다. 가을 서리가 내릴 때에는 밭이 온통 호박으로 차 있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되호박은 맛이 없어 애호박은 된장국으로 끓여먹는 정도다, 가을에 수확하여 돼지의 사료로 이용하였다. 되호박에는 섬유질이 많고 특히 성숙하면 속이 국수처럼 생긴 섬유질로 꽉차있다. 바로 이 되호박이 '국수호박' 이다. 외국에서 도입하여 혼자서만 독점하려고 농촌진흥청에 품종등록을 요청했던 그 호박이다. 다이어트나 건강식으로 좋다.

물호박떡 : 늦가을 담배밭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늙은 호박은 가을의 운치를 더해 준다. 늙은 호박에는 카로틴과 비타민 A,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식품으로 꼽힌다. 생호박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물호박떡은 수더분한 떡으로, 모나게 칼로 썰어 담은 것보다 찌면 그대로 합치에 담아 손으로 떼어 먹는 것이 맛이 좋다.

재료 : 멥쌀 6컵, 소금 1큰술, 설탕 3컵, 늙은 호박 1kg, 거피쌀 3컵, 소금 ½ 큰술

만드는 법

- ① 쌀은 5시간 정도 불렸다가 물기를 뺀 후 소금을 넣고 곱게 뺨아 체에 내린다.
- ② 팔도 물에 불려 찜통에서 찌 다음 뜨거울 때 체에 내려 팔고물을 만든다.
- ③ 늙은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속을 파낸 다음 5cm 길이로 얇썰



박하게 썰어 소금, 설탕을 골고루 뿌려 놓는다.

- ④ ①의 쌀가루에 설탕 1½컵을 넣고 골고루 섞은 다음 설탕에 재워둔 호박을 함께 섞는다.
- ⑤ 시루에 김이 오르면 먼저 팔고물을 넣고 ④를 3~4cm의 두께로 담고 팔고물을 뿌리는 것을 5~6회 반복한다.
- ⑥ 김이 오르고 난 후 30~40분간 찌낸다.

※ 늙은 생호박을 알뜰하게 저며 쪄다. 설탕에 재워 두었다가 사용하면 단맛이 잘 스며들어 맛이 있으며 물도 많이 생기지 않는다.

※ 시루에서 찌낼 때 처음에는 물에 적신 보자기로 위를 덮어 찌다가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20~30분 간다시 찌다. 이것은 떡이 부서지지 않고 속까지 잘 익게 하기 위해서이다.

※ 생호박 대신 늙은 호박요가리를 이용하면 쫄깃하면서 구수한 단맛이 별미다. 맛있는 호박요가리는 겨울철 천서리에 얼려가며 밀려야 단맛과 쫄깃함이 더해져 꽃김과 같은 맛을 낸다.

호박섞박지 : 늙은 호박을 넓적넓적하게 썰어 절인 후 배추, 무, 무청 등을 같이 넣고 멸치젓국과 막고춧가루로 버무린 충청도식 김치다. 향아리에 꼭꼭 눌러 담아두면 한달이면 익는다. 익은 호박섞박지를 독배기에 담아 밥솥에 찌면 별미다.

재료 : 늙은 호박 ½개, 무청 500g, 배추 1kg, 굵은 소금 1컵, 파 3뿌리, 마늘 2통, 생강 1통, 고춧가루 1.5컵, 새우젓 1컵, 소금

만드는 법

- ① 늙은 호박은 속을 파낸 다음 길이로 잘라서 칼로 껍질을 벗겨낸 후 1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 소금에 절인다.
- ② 무청은 겉의 엑센 부분을 떼어내고 고갱이만 다듬어 배추와 함께 소금에 절였다가 건져 놓는다.
- ③ 파는 어슷하게 썰고 마늘, 생강은 곱게 다진다.
- ④ ①과 ②에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다음 다진 양념과 파를 넣고 골고루 버무려 향아리에 꼭꼭 눌러 담는다.

여러 가지 호박과 꽃, 씨의 모습

사진설명

1. 호박꽃봉오리(암꽃): 꽃이 피는 시간은 오전 3시 반~5시 사이에 시작되고 오후 1시나 2시경에 진다. 암꽃의 수정능력은 개화당일로 오전 4~6시가 최고가 된다.
2. 호박꽃(수꽃): 호박꽃 화분의 발아력은 개화전일 오후 3시경부터 활력이 증가되어 한밤 중에 최고가 된다. 개화당일 오전 9시 이후는 착과에 필요한 활력이 하로 된다.
3. 늙은 호박의 속: 늙은 호박은 속이 노랑 내지는 주홍색이다.
4. 여러 가지 호박 종자(윗줄 왼쪽부터) 청호박, 참호박, 뒤편, 아랫줄 단호박, 약호박, 꽃호박, 가운데 뚝호박
5. 여러가지 호박: 긴호박(좌), 둥근호박(윗줄), 약호박(아랫줄 중앙), 땃돌호박(아랫줄 오른쪽)
6. 둥근호박: 강원 양구군 남면 가오장리
7. 긴호박: 여주군
8. 땃돌호박: 완주군 상판면
9. 땃돌호박: 완주
10. 청호박: 강원 강릉시 시천면 사기마리 8
11. 청호박: 여주군
12. 청호박: 늙어도 겉이 새파랗고 납작하게 생긴 청호박은 산후조리에 특히 효과가 좋다고 한다.
13. 청호박: 전남 완도
14. 울릉호박: 엿을 만드는 울릉도 특종 호박
15. 땃돌호박
16. 참호박: 가로 20cm에 세로 30cm 내외로 참호박이 약호박보다 꽤 큰 편이다.
17. 약호박: 강원 강릉시 시천면 사기마리. 약호박은 약간 납작한 가로 20cm에 세로 13cm 정도이다.
18. 뒤편: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서 심어왔던 뒤편
19. 뒤편: 강원도 평창군
20. 단호박: 경기 포천군 화현면 화현3리 단호박, 미식축구공과 비슷한 모양이며 맛있는 단호박이다.
21. 뚝호박: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2리
22. 뚝호박(위), 약호박(아래 왼쪽), 참호박(아래 오른쪽) 등. 평창군 대화3리 김문기씨가 오랫동안 재배하여 왔다.
23. 호박고치를 만드는 할머니(강화도)
24. 땃돌호박, 제주도
25. 땃돌호박, 제주도



글·사진 우정아
경기조경대학 강사, 가든디자이너



새장으로 만드는 행잉 가든 HANGING GARDEN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한 번쯤 새를 길러 봤을 것이다. 새가 잘 살아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죽고 새장은 버리기 아까운 애물단지가 된다. 이 새장을 활용해 걸이화분을 만들어 보자. 새장에 줄기가 늘어지는 식물을 식재하면 이국적인 느낌의 그린 인테리어 소품으로 재탄생 된다. 또한 새장에 있는 배변판은 배수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어느 장소에도 배치할 수 있고, 특히 공중에 걸어둠으로써 좁은 공간에 수직적 디자인으로 응용하기에 좋은 소재이다.

완성된 행잉가든

재료

새장, 후마타, 장미, 신홀리페페로미아, 호야, 코코넛 패드, 모형새, 배양토, 수태



새장의 창살을 식물의 줄기가 나오기 좋게 잘라준다.



배양토를 조금만 깔아준다.



신홀리페페로미아, 후마타를 식재한다.



식물 사이사이에 배양토를 꼼꼼히 채워 준 후, 수태를 덮어준다.



새장에 코코넛 패드를 크기에 맞게 잘라서 깔아준다.



식재할 식물의 위치를 정하고 호야를 식재한다.



장미를 식재한다.



모형새를 새장에 고정시킨다.



소엽풍란과 다육이의 공생

공생하는 식물의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가 흔히 화분보다 비슷한 성격의 식물을 같이 심어본 경험은 많을 것이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소엽풍란과 다육이의 공생... 흔히 다육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고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는 물주기와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배수의 문제다. 다육식물은 공중습도만으로도 생장이 가능하다. 소엽풍란과 다육이를 공생할 수 있도록 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분무기로 흠뻑 물을 뿌려준다. 정말 잘 자라고 있다. 소엽풍란 또한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이지만 목부작이나 석부작처럼 물을 흠뻑 뿌려주어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공생이 가능하다.

사진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수년을 공생하며... 소엽풍란은 수시로 꽃을 피우며 잘 자라고 있다. 여기 공생하는 다육이의 이름은 '프리티'... 이 작품이 우리집 강아지도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봐요.^^

겨울철 도시 베란다 정원

글·사진 박선영
미추홀작가협회 부이사장, 신영회회장

우리집은 요즘 베란다뿐만 아니라, 거실까지 식물로 가득 차 있다. 날씨가 추운관계로 바깥생활을 하던 식물들도 다 집안으로 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집 베란다 천정은 아이비들의 놀이터다. 누가누가 먼저가나 천정 벽을 타고 경주라도 하는 듯하다. 여기에 마삭줄도 함께 놀자고 아우성이다. 이때 시계꽃이 방긋 웃으며 지켜본다. 호야꽃은 옆에서 아무진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오랫동안 베란다 정원을 가꾸다 보니 식구들이 많아져서 현관문 밖 계단 한쪽도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구근식물은 꽃을 본 다음 캐내어 마른 흙에 묻어 보관해 두었다가 시기에 맞추어 식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근식물은 오랫동안 소멸되지 않고 좀더 건강한 꽃을 볼 수 있다.



식물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겨울철에도 전문가들이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한 식물원 등 나들이 길에 나서는 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베란다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예쁜 꽃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Tip 꽃대에서 자연 발아된 포기는 바로 떼내어 옮기지 말고 휘묻이 방법을 이용하여 화분에 묻어주면 또 하나의 양초를 선물 받을 수 있다. 꽃대의 줄기는 엄마의 땃줄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요즘은 양초, 꽃댕강, 풍노초, 오공국화, 소엽풍란, 장미바위솔, 홍자귀, 단풍취, 시계꽃, 호야 등이 꽃을 피워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 중 양초는 환경만 잘 맞춰주면 사계절 내내 꽃을 피워 나를 즐겁게 하는 식물이다.



Tip 분갈이를 할 때나 식물 다듬기를 할 때 도자기 손물레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식물의 고사된 잎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자연에 있을 때는 그냥 두어도 무방하나 실내 정원에서는 지저분해 보이는 점도 있고 각종 해충의 서식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가위를 사용하는데 가위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거나 목초액에 담가서 소독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균감염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양초를 키우면서 스스로 터득한 또 다른 번식방법...

꽃이 피고 맺은 씨앗으로 발아도 가능하나 꽃이 핀 뒤 자르지 않고 놓아둔 꽃대 자체에서 씨앗이 매달린 채 발아되어 번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꽃이 귀한 겨울에서 봄 사이에 피는 에리카 Erica

에리카는 겨울에서 봄 사이에 귀여운 종 모양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꽃나무이다. 겨울과 봄 사이, 꽃이 귀할 때 꽃을 피우는 이 나무에 대해 알아보자.

개요 꽃이 오래가는 편이다

에리카는 유럽과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진달래과에 속하는 관목이다. 꽃이 귀한 겨울에서 봄 사이에 꽃이 피며, 꽃 색은 백색과 분홍색이 있고, 종을 닮은 화형이 귀엽고 사랑스럽다. 유럽에서는 에리카를 '히스'라고 하는데, 유럽의 봄 들판에 분홍빛 히스꽃이 가득 핀 광경은 정말 장관이다. 에리카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키가 30cm에서 3m까지 자란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종류는 모두 1m이하로 키울 수 있는 작은 품종이라 가정에서 키우기가 좋다. 그중에는 꽃이 지더라도 꽃 색이 퇴색되지 않고 마른 채로 나무에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종류도 있어 꽃의 관상 기간이 길다. 개화기가 아니더라도 침엽수를 닮은 나무 모습이 아름다워 관상 화목으로 키워도 좋다.

식재정보 여름 직사광선은 피한다

에리카를 포함한 진달래과 식물들은 모두 건조에 약한 편이며 산성 토양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에리카를 심을 용토는 보습력이 좋고 산성을 띠는 녹소토나 피트모스의 함량을 높게 하면 좋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블루베리 식재 용토에 식재해도 잘 자란다. 에리카는 여름의 직사광선에 약한데, 여름의 피약벌 아래에선 잎이 쉽게 타버릴 수 있고, 토양 속의 수분이 빨리 증발해버려 에리카가 말라 죽기 쉬우므로 여름엔 반그늘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여름 이외의 계절에는 직사광선을 보여주며 키운다.

글·사진 윤태훈
파워블로그 류제의 정원
<http://blog.naver.com/bornyunny3>

“
에리카는 여름의 강한 직사광선, 과습은 피하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물을 자주 줘야 한다.

비료, 물주기 토양이 건조해지는 일이 없게 물을 주어야 한다

에리카의 뿌리는 아주 가늘기 때문에 흙이 말라버리면 뿌리가 회생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에리카를 심은 흙이 언제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주어야 한다.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어야 하며 여름에는 특히 하루에 한 번 정도로 물을 주어야 에리카가 말라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겨울에는 3일에 한 번은 물을 주어야 한다. 공중 습도가 높은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나무에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것도 좋다. 에리카는 과습에도 약하다. 흙을 말리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토양을 항상 과습한 상태로 만드는 것도 안 된다. 비료는 사람이 시작되는 2~3월부터 6월까지 물에 녹인 액비를 2주에 한 번씩 공급해준다. 가을엔 덩이 거름을 흙 위에 올려준다. 질소 성분이 포함된 액비를 늦여름에서 가을까지 계속 줘버리면 꽃 수가 적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번식법 휘묻이가 성공률이 좋다

에리카는 삼목, 실생, 휘묻이로 번식시킬 수 있다. 삼목은 봄에 새 가지를 5~6cm 정도로 잘라 피트모스에 꽂고 그늘에서 물을 자주 주며 관리하면 된다. 에리카는 줄기가 늘어지는 종류가 많다. 이런 종류는 휘묻이로도 번식이 가능하다. 그냥 땅에 늘어진 가지의 중간 부분을 흙에 묻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장마철쯤에 뿌리가 난다. 1년 정도 그대로 키운 후 어미포기와 나누어 심으면 된다.

삼목은 전정과 병행하면 좋는데, 에리카는 꽃이 진 직후가 전정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보기 싫은 가지를 잘라 삼목하면 좋다.

병충해 병충해에 잘 걸리지 않는다

특히 병충해에 잘 걸리지 않는 편이다. 가끔 진딧물이 불기도 하므로 이럴 때는 약제로 방제한다.

에리카의 월동 종류마다 내한성이 다르다

에리카는 늦겨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내한성이 아주 강한 종류가 있는 반면,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 죽는 품종도 있다. 에리카 중에 노지월동이 가능할 정도로 내한성이 강한 종류에는 Erica carnea, Erica melanthera가 있다. 막상 화원에 가서 보면 동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에리카를 구입했는데 어느 종류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화분에 심어 베란다에서 월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에리카를 포함한 진달래과 식물들은 겨울에도 물을 주지 않으면 곧잘 말라 죽으므로 겨울에도 3일에 한 번은 물을 주어야 한다.



화분에 심어져 있는 모습



돌나물 암석가든, 옥상정원 등에 적합한
극건조 대표식물

Sedum 세덤



돌 틈에서 잘 자라는 식물, 세덤. 아담하게 포복성으로 뻗어나가는 세덤은 작은 잎에 작은 꽃을 소담하게 피워내는 식물로 바위와 어우러짐이 좋아 정원으로 꾸미기에 그만이다.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품종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특히 물빠짐이 좋으면 다년간 큰 포기로 키워나갈 수 있다. 다육식물로 겨울에도 푸르름을 볼 수 있고, 내한성, 지피력, 회복력이 좋은 품종이다. 단, 습기는 조심해야 한다. 종류를 살펴보면,



노란줄무늬세덤: 포복형으로 퍼져나간다. 지피력이 좋고 생육형태가 좋아 단독으로 심으면 좋다. 특히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으면, 장마철에 잎이 물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옥상조경, A리가든 앞쪽 식물로 군식하거나 라인을 따라 심어주면 좋다.



백두산애기세덤: 우리꽃에서 보리죽중한 품종으로 지면을 따라 자란다. 가을엔 단풍 든 상태를 볼 수 있고, 겨울이면 반상록상태로 월동한다. 복사열과 건조에 매우 강해 옥상, 암석가든에 적용하면 좋다. 다른 세덤에 비해 습도에 강하다.



금강애기기린초 섬기린초와 애기기린초의 교배종이다. 잎이 조밀하며 지면에 깔리는 매트형으로 자란다. 6~7월에 노란색 별모양의 꽃을 피운다. 꽃이 지고 난 뒤에도 적색의 꼬투리를 물고 있다. 일반 화단에서도 잘 자라 화단앞쪽식물, 라인식물로 적용하면 보기 좋다.



블루애기세덤 건조에 강하며 잎이 부드럽고, 빨리 자라 암석가든에서 돌주변으로 심으면 이끼가 낀 듯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옥상에 조경을 원할 땐 앞라인에 심어 흘러내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블루애기세덤은 물이 차 있는 곳만 생육은 좋다. 특별한 병충해도 없어 관리 또한 용이하다. 초기에 생육이 너무 좋으면, 장마철에 녹아내리는 현상이 올 수 있으니 배수가 잘 되는 곳을 택해서 식재하면 된다. 어떤 식물보다 가치있는 품종이 될 것이다.



파랑잎뿔의비름 초록의 잎과 빨간 꽃이 어울려 최상의 정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품종이다. 매트형과 직립형의 중간정도의 특성이 있다. 포기형성이 좋고 직립형의 물러짐이 없어 안정되고 깔끔하게 기를 수 있다.



단풍세덤 이름만큼이나 사계절 내내 단풍이 들어있다. 잎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듯 붉게 물든 잎을 보는 순간 '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다. 바위위로 뻗어나가는 단풍세덤은 멋스러움을 더한다. 꽃은 6~7월에 분홍색으로 핀다. 잎 색보다 연하고 꽃이 아름다운 다른 식물과 달리 소박하다. 여름철 장마에 강하고 다른 세덤과도 잘 어울린다.



큰뿔의비름만추 세덤류 중에 꽃이 가장 탐스럽게 핀다. 작은 봉오리들이 한데 어울려 몽글몽글 피어난다. 초록 잎과 빨간 꽃이 대비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탐욕하게 만든다. 이 꽃은 냉해에 강해 서리가 내린 후에도 볼 수 있다. 형태를 계속 유지해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



식물 바이오필터

바이오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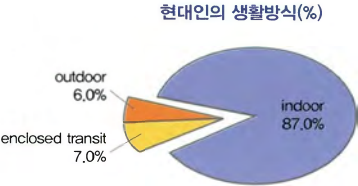
현대인들의 삶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실내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즉 실내 환경이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내환경과 삶의 질

대한민국은 아웃도어와 캠프 열풍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토록 자연속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일까? 아마도 오랜 세월 자연속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왔던 인류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과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으로 회귀하고픈 본능에 의한 행동일 것이다.

현대인은 생활방식의 변화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 조사에 의하면 하루 중 80~90%에 이른다고 한다. 즉 현대인들의 삶의 질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실내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내환경은 열환경, 소리환경, 빛환경, 공기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공기만 살펴보면 일반 성인이 하루에 숨 쉬는 공기의 양은 약 20~30kg으로 하루 섭취하는 6kg의 음식물에 비하면 4~5배 정도로 많은 양이다. 즉 실내생활이 주를 이루는 현대인의 삶의 질은 실내 공기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에너지 절감과 새집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

1970년대 에너지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전의 잇단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비상까지 걸려 에너지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에너지의 40%를 사용하는 건축물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에너지 효율빌딩이 건축계의 중요한 이슈가 된지 오래되었다. 에너지 효율빌딩은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밀폐율을 높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외부공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실내공기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나빠진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기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환기시스템이 대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의 10~20%를 차지하게 되어 다시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악화된 실내공기 오염과 관련된 질환으로 매년 280만명이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미국환경안전청(EPA)에서는 악화된 실내공기질을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는 5대 요소의 하나로 규정한다. 실내 공기오염은 기분저하 뿐만 아니라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새집증후군(병든 빌딩 증후군)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염된 실내공기질에 의한 근로자의 생산성 하락에 의한 경제적 손실비용이 200~2000억 달러에 이르고 새집증후군 하나만으로도 150~4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오염물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게 되는 모든 것에서도 발생한다. 다양한 오염물질 등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물질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다.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가구와 벽지, 모니터 등에서 발생하며 새집증후군, 두통, 흥분, 집중력 감퇴, 눈과 호흡기 자극, 암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2년 이상 된 집에서 새집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의 원인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보다는 미생물, 먼지, 곰팡이 포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글 정현환 박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식물의 생물정화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진행중



구분	주요 오염물질	발생원
Indoor / Outdoor	NOx, CO	연소(담배, 소각, 차량, 난방 등)
	CO2	연료의 연소, 대사작용
	SPM&RSP	담배연기
	수증기	생물적 활동, 연소, 증발
	VOCs	휘발작용, 연료의 연소, 도료, 살충제, 방향제
Indoor	포자	균류
	Radon	나무, 건축재료, 물
	HCHO	절연재료, 가구, 담배연기
	Asbestos	난연성 물질, 절연재료
	VOCs	접착제, 용제, 요리, 화장품
	먼지	방향제, 도료, 수은 함유제품에서 방출
	알레르기	애완용 동물의 털, 진드기
	미생물	진염병

환기와 식물에 의한 실내공기정화

오염된 실내공기질은 깨끗한 외부공기로 환기를 시켜주면 해결될 수 있으며, 실내오염도를 20%만 감소시켜도 급성기관지 질환 사망률을 4~8%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시에 외부의 공기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점과 대형빌딩의 경우 건물 에너지의 10~20%에 해당하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공조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에너지 소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급적 환기율을 줄이면서 실내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 실내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 실내식물은 공기정화효과 외에도 실내 온습도 조절, 심리적평안함과 정서적 안정감, 미적·조경적 가치 등의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사무실내에 식물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근무자의 건강자각증상이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업무능력이 향상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실내식물의 이용과 바이오필터(바이오 월)

식물의 공기정화능력이 많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실내식물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양(평균 3.3m2 당 화분 1개)의 식물을 필요로 한다. 이는 실내 공간 활용도를 낮추게 되는 문제가 있다. 식물의 공기정화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바이오필터 시스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생물과 식물의 공기정화능력을 최대한 시킬 수 있는 식물바이오필터(바이오 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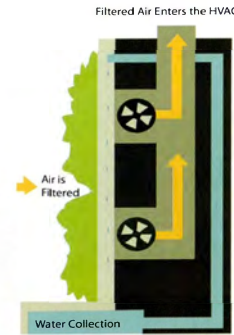
전통적인 바이오필터는 원래 오염된 물을 미생물로 정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미생물과 식물의 공기정화능력을 모두 활용하는 쪽으로 개발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바이오필터는 VOC와 같은 실내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악취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도 분해하여 해롭지 않은 물질로 분해하며 식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유망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바이오필터시스템은 개별식물이 식물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는 것에 비해 인위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팬을 이용한다. 식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공간의 오염물질을 끌어들이 식물과 뿌리부분의 미생물에 의해서 동시에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효율을 수십 배까지 높

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재된 식물 1㎡로 실내공간 20㎡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바이오필터시스템에는 공기를 통과시키기 위한 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때 토양이 공기의 흐름을 막아 에너지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공기가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통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바람에 의해 뿌리가 건조되는 스트레스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토양,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공기정화능력을 높일 수 있는 송풍속도의 구형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에서는 뿌리부분에 특수 정화용 배양토층과 수직형 공기순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실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벽면녹화시스템과 바이오필터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개발된 것이 바이오 월이다. 캐나다에선 건물의 벽에 바이오 월을 설치하여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며,



Darlington 박사가 개발한 수경재배를 활용한 바이오월 모식도와 설치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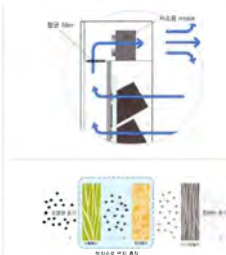


바이오 월 가정집(식물바이오필터)을 적용한 모습

건물공조시스템(HVAC)에 연결하여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정화된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경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을 사용하기 어렵고 토양재배에 비해 미생물의 양이 적어 정화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에서는 식물잎에 의한 VOC 흡수 능력뿐만 아니라 뿌리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배양토 흡착 등에 의한 바이오필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식물 공기청정기 시스템인 바이오 월을 개발한 바 있다. 바이오필터 시스템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정화할 뿐 만 아니라 건물의 환기량을 약 23% 줄여 대형건물의 환기와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60%까지도 줄일 수 있다. 캐나다의 Alan Darlington 박사는 바이오필터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려하였을 때 바이오 월 운영으로 한여름에 0.24KW/1인, 한겨울 0.4KW/1인

의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도시농업연구팀 연구에서도 바이오 월을 설치하였을 때 한여름에 실내온도를 주변보다 평균 0.7℃, 최대 3℃까지 낮추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식물을 활용한 바이오필터는 실내공기질 개선, 환기량 감소, 냉방비 절감, 식물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적, 심리적 가치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그린빌딩 또는 에너지 효율건물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실내생활이 주를 이루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할 때 바이오필터시스템(바이오 월)은 선택보다는 필수적인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초만간 식물바이오필터가 상용화되어 그림과 같이 건축물 내에 바이오필터를 활용한 실내정원시스템이나 바이오 월이 설치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G**



식물 바이오필터를 활용한 실내 건축디자인(초월+도시작품)

글·사진 이웅희
한국스트로베일건축연구회 대표



압축짚단을 쌓아 만든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탄생과 역사

흙집, 시멘트 집, 통나무 집...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형태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공의 재료로 지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고민을 안고 살아야할지 이사를 가야할 지를 고민합니다.

여기 짚을 압축한 형태로 쌓아올려 집을 짓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공의 재료가 아닌, 천연의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오래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짚과 흙으로 집을 짓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방식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짚이 흙과 버무려져 벽으로 쌓아올려지는 방식이 아니라, 짚 자체가 압축되어 그것만으로 벽이 올라가는 스트로베일 방식은 짚을 압축하는 기술이 생겨나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중앙에 자리잡은 네브라스카주는 거대한 평야지대로 집을 짓는 자재로 쓰이는 목재가 매우 귀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던 집은, 골격이 필요 없이 지을 수 있는 집으로 잔디땀(sod)을 시루떡 쌓아올린 듯이 벽으로 쌓아올린 집(sodhouse)이었다.

그렇게 집을 지던 그 지방 사람들은 추수 후 소 먹이용으로 마차에 말짚들을 실어 나르면서 번거롭게 여러 번 나르게 되는 수고를 덜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그 고민은 짚단 압축기(baler)를 개발하면서 손쉽게 해결됐다. 좀 더 효율적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즉 압축 벚짚(베일)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1860년대에 생겨난 짚단 압축기(straw-baler)는 2마리 말의 힘으로 동력을 사용했다. 그 후 증기기관의 동력을 이용하면서 더 모양이 좋고, 압축 강도가 좋은 압축 짚단(베일)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베일들을 차곡차곡 쌓다가, 주민들은 곡식을 임시 저장할 공간을 베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베일로 만들어진 임시 곡식창고가 만들어졌다. 비록 흙집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 년 동안 창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베일로 집도 지을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었다.

마침내 네브라스카 주의 샌드힐(Sand Hills) 지역에서 스트로베일의 최초의 집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제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스트로베일의 방식(로드베어링 방식: 골조없이 베일로만 벽을 쌓는 방식)이 네브



압축짚단(베일)로 쌓아 만든 집의 내부

베일시공

라스카 주에서 많이 보급되었다. 2층 주택으로도 지어지고, 학교 건물(1902년), 교회 건물(1928년)로도 지어졌다.

그리고 1938년에는 스트로베일에 골조를 세우는 방식(넌로드베어링 방식)이 처음 도입되어 웅장한 2층 박물관(Burrit Museum, Alabama)이 세워지게 되었다. 1948년에는 베일에 흙 물탈을 입혀 거대한 흙벽돌 모양의 베일을 만들어 40평 규모의 집을 짓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의 스트로베일 하우스가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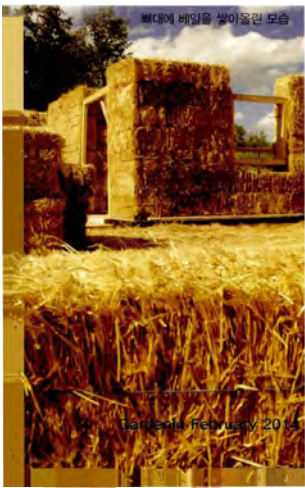
하지만 스트로베일 집짓기가 195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건축 붐에 새로운 건축자재(시멘트)의 대량 생산 체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집짓기의 새로운 풍조가 일어나게 된다. 인류가 집을 짓기 시작한 이래로 유지되던 방식 즉, 자기지역에서 흔하게 존재하는 천연자재로 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 거대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인공의 자재를 먼거리 운송을 통해 구입해서 전문가에 의해 짓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규격화된 인공자재로 건축 전문가들이 중장비를 사용해서 짓는 방식은 걸보기에 세련되면서도 당장은 저렴하게 여겨져 점점 보편화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집을 지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눈부신 기술 발전(?)이 이룩한 인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들의 피해를 전반적으로 경감하게 된다. 밀폐성(기밀성)이 높은 창호(이른바 사시창호)가 전 지역에 보급되면서 시멘트나 화학적 가공품으로 된 실내인테리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실내에 가두게 되면서 점점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에서 뿐 아니라 집짓는 방식에서도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 더 나은 기술 개발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는 부류와 비록 불편하고 투박해보여도 자연에 순응해 사는 것이 자연과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 부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 후자 부류의 사람들이, 현대 과학에 바탕을 둔 관행 건축술이 펼치는 장맛비 비전에 반기를 들고 스트로베일 방식을 소생시키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에 뉴스 기사, TV 대중 매체들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면서, 많은 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적인 활발한 기술보급을 이루게 했다. **G**



베일에 베일을 쌓아올린 모습

사람들이 베일을 쌓는 장면

Barteria festival, 2014

51



딸기의 신상품 보급효과 이젠 매향, 설향, 금향입니다~

글·사진 논산딸기 육종팀 김현숙 연구원
정리 가든인 편집팀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딸기는 이제 노지에서 재배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하우스재배가 널리 보급돼 12월, 1월, 2월이 제철이다. 소비자는 맛, 색, 향이 좋은 딸기를 좋아한다. 딸기의 신상품 보급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논산딸기시험장의 성과를 알아봤다.

겨울이 제철인 딸기가 한창이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해도, 한두 번은 꼭 사먹는다. '달다'면서 무심코 사먹은 딸기가 종자살육을 두고 일어섰다. 2002년에 98.6% 독점했던 일본품종(레드펠, 아끼히메)을 10년 만에 24.6%까지 밀어냈다. 우리 품종 매향, 설향이 해낸 것이다. 2002년에 육성 직후 국산품종 매향이 재배되기 시작했고, 2005년 설향 육성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설향은 일본품종 아끼히메와 레드펠의 장점만을 고루 갖춘 종으로 해마다 재배면적을 10% 넘게 끌어올렸다.

점유율 1%에서 75%까지 끌어올린 설향은 과즙이 풍부하고 당과 산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맛이 좋다. 또 모양과 색이 아름답고 수확도 레드펠이나 매향보다 많았다. 병해충 저항은 흰가루병에 강하고 탄저병은 매향보다는 강하나 레드펠보다 약간 약하게 나왔다. 2009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역시 2006년도에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통령상을 받은 매향은 일본종 도치노미네와 아끼히메를 교배하였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신선도가 오래갔지만, 병해충에 약해 농가에서 재배하지 않으려 했다. 일본에 막대한 사용료를 내고 일본품종을 재배하느니, 우리 품종 매향을 재배하면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길이 열려 농가에 매향을 재배할 것을 적극 권했다고 한다.

매향은 당도와 경도가 높고 고유한 향이 풍부하다. 과피의 광택 또한 우



매향딸기(매향딸기 종연도)

수하고 빨리 자라 조기수확에 적합한 품종이다. 모양도 우수하고 맛이 뛰어난 매향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국내 신선딸기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다. 병해충은 흰가루병에 비교적 강하고 탄저병과 잣빛곰팡이에는 약하다.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1998년 아끼히메와 도치오토메를 교배하여 경도와 당도가 높아, 논산 4호로 선발된 딸기는 금향이다. 농가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5년 농가에 보급하였다.

당도가 높고 산도가 적어 단맛이 풍부하다. 고온기에도 신맛이 적다. 과형은 원추형으로 진홍색을 띠며, 과육은 단단해 저장성이 좋다. 병충해는 강하지 못하다. 특히 위황병에 약하다. 탄저병과 흰가루병에도 약하다. 하지만 경도, 당도, 과실 품질이 우수하여, 수출용이나 고급품종으로 정착되리라 예상된다.

우수한 품종개량과 보급에 앞장선 논산딸기시험장은 매향(도치노미네+아끼히메)을 2002년, 만향(여봉+아끼히메)을 2003년에, 설향(아끼히메+레드펠)을 2005년에, 금향(아끼히메+도치오토메)을 2005년에, 속향(설향+매향)을 2012년에 육성보급하였다.

이렇듯 탄생의 비화가 있는 국산품종은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되는 '신선딸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매향은 식미와 향이 우수하고 고경도로서 수출에 적합한 품종으로 사랑받는다. 로열티 분쟁으로 일본수출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재배지역은 경상도가 수출물량의 98%를 차지하며, 특히 진주시의 경우 76%의 수출비율을 차지해 딸기 전체수출의 건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G**



설향딸기(설향딸기꽃)

“

향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딸기는 인기가 좋다. 언뜻보면 비슷한 모양이지만 자세히 보면 품종마다 약간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 딸과 딸린고추에 이어 재배면적 3위에 오른 딸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품종은 하나없고, 일본품종인 보고조생, 여봉 등이 딸기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니...지금 생각해보면 상전벽해 격이다.

”



금향딸기



글·사진 차병원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작물보호제(농약)!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온 농약이란 말이 왜 작물보호제로 바뀌었을까?

농약의 변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몸에 해로운 물질(침가제나 발암물질)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낱알이 알아보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셨지요?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농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작물을 괴롭히는 병원균과 해충을 없애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해약으로 오해받고 있으니까요. 오죽하면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 이름까지 '작물보호제'로 바꾸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호박에 चु친다고 수박 되냐?" 예, 다 좋습니다. 뭐라고 하셔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 병균, 잡초 따위를 없애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약품'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약'이란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 또는 '해로운 동식물을 없애는 데 쓰



다 쓴 농약병을 마뎃자루에 담아놓았다.

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약'과 '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농약과 약 모두 불편하고 아픈 생물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들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농작물이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농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플 때 약을 먹듯이 농작물이 아플 때는 농약을 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농약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경계(驚氣)하듯 할까요? 탄저병균을 죽이는 약과 무좀약은 뭐가 얼마나 차이 나는 걸까요? 진딧물을 죽이는 약과 모기를 죽이는 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 몸에 약을 쓰는 것은 거부감이 별로 없으면서, 농작물에 약을 쓰는 것은 그러도 싫어할까요?

'독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균이나 해충을 죽이려면 필수적인 '독성' 때문에 농약은 사람으로부터 기피되는 것이지요. 그 독성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암까지 생긴다는 우려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농약의 입장에서 참 억울한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농약보다 더 위험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농약이 대표적인으로 비난 받기 때문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주부들에게 물었

습니다. 가장 많은 주부가 답한 것은 '식품첨가물(43.5%)'이었으며, '농약'이 24%로 그 뒤를 이어 2위를 했습니다. '담배'는 11.5%로 3위였습니다. 농약을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암 전문가들에게 했습니다. '담배'가 30%로 2위, '바이러스'가 10%로 3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반음식물'이 35%로 1위였으며, '농약'은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농약을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농약이 얼마나 잘못 알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이상 '농약안전성교육자료,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췌)

사람 약이든 농약이든 본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약품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사용되므로 약효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는 반면, 농약은 사용법이라든지 가격이 중요한 특성이 되는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농약은 농경지와 같이 개방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 병원균이나 해충에 대한 독성은 강하면서도 그 밖의 생물들과 토양 등 환경에는 영향이 적어야 합니다. 반면, 의약품은 약효만 좋다면 치료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약의 특성이 저독성화, 고활성화, 저잔류화, 그리고 고선택성화 하고 있습니다. 즉, 독성은 약해지면서도 활성은 높아져 사용약량이 적어지고, 잘 분해되어 잔류되지 않으며, 선택성이 높아져 대상 병해충 이외의 생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470품목 중 맹독성 농약은 하나도 없으며, 고독성 농약도 산란 또는 검역용 등 단 3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농약 독성 구분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투여경로에 따라 경구, 경피, 흡입 독성으로 구분하고, 독성이 나타나는 속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독성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급성독성의 강도에 따라서 맹독성, 고독

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에서 독성이 가장 낮은 저독성 농약이 전체의 90%이상인 1,294품목이며, 나머지 173품목이 보통독성 농약입니다. 실제로 독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의약품인 아스피린도 보통독성에 속하여 대부분의 농약보다도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등, 우리 주변의 물질들 중 농약보다도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대표적인 독극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농약이 이름을 바꾸고 싶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농약은 몇몇 맹독성 농약들로부터 비롯된 오해를 벗어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작물보호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도 지금까지는 '농약' 대신에 '작물보호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작물보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걱정은 대부분 기우이며, 이 시대의 작물보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작물보호제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물보호제는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어 준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장점이 없습니다. 아무리 독성이 적다고 하여도 자연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물질들로서 생태계에 별로 도움 되지 않습니다. 즉, 가능한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 최근의 농약은 저독성화, 고활성화, 저잔류화로 가고 있다.

2월 농사정보

자료출처 : 경기농업기술원

핵심사항	■ 새해 텃밭 영농설계 ■ 영농자재 확보계획 : 종자, 비료 등 ■ 고추, 가지, 토마토 육묘상 씨앗 뿌리기 ■ 밀 보리밭 웃거름주고 배수로 정비와 밭아주기	
농가메모	상 / 중순	중 / 하순
식량작물	■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 ■ 재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재배 - 고품질 품종 우량종자 준비 ■ 발작물 우량 종자준비(10a) - 콩 : 4~7kg - 옥수수(곡실용) : 2~2.5kg - 참깨 : 0.3~0.6kg - 땅콩(알콩) : 8~10kg ■ 고구마 저장고 관리 - 온도 12~15℃, 습도90~95% ■ 조기재배 식용옥수수 : 온도 25~30℃ ■ 감자 시설재배 온습도 관리 - 온도 18~25℃, 습도 80~90%	■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 ■ 재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재배 - 고품질 품종 우량종자 준비 ■ 모래는 겉토와 토양 개량제 사용 ■ 자체 준비(비닐, 활죽, 부직포, 상자 모판줄) ■ 보리밭 관리 - 배수로 정비로 해방 방지 - 보리밭 웃거름 주기(남부) ■ 발작물 우량품종 종자 준비 ■ 고구마 저장고관리 - 온도 12~15℃, 습도90~95% ■ 감자 저장고 환경관리 ■ 조기재배용 고구마 육묘상 설치 ■ 시설재배 옥수수 적기에 옮겨심기
원예작물	■ 시설원에 에너지절감기술 실천 ■ 폭설피해대비 비닐하우스 안전관리 ■ 고추 종자 파종(조숙 재배) ■ 일찍 가꾸기용 열매채소 육묘관리 ■ 시설포도 하우스 관리 ■ 사과, 배 등 과수 가지치기 ■ 과수 거친 껍질 벗겨주기와 과원 청소 ■ 정장과실 구격 선별 출하 ■ 시설화훼 환경관리 및 절화재배 적기수확	■ 시설원에 에너지절감기술 실천 ■ 폭설대비 비닐하우스 안전관리 ■ 일찍 가꾸기용 열매채소 육묘관리 ■ 시설원에 병해충 방제 ■ 난지형 마늘, 조생 양파 웃거름 주기 ■ 고추 종자파종(노지재배)과 육묘상 관리 ■ 복숭아, 포도, 감 등 과수 가지치기 ■ 과수 월동병해충 잠복처 제거 후 약제 살포 ■ 시설화훼 환경관리 및 절화재배 적기수확
축산 특용작물	■ 가축 피부손질과 일광욕, 축사 보온환기 ■ 소 비타민, 무기물 첨가제 급여, 임신후 건조 먹이기 ■ 소, 돼지 분만 관리 ■ 돼지 콜레라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과 예방 ■ 남부지방 초지 1차 웃거름 주기 ■ 약용작물 파종준비 ■ 느타리버섯 후기 및 재배사 소독 ■ 뽕발용 퇴구비 확보	■ 소 발톱 각기와 운동시기기 ■ 가축에게 영양가 높은 사료 먹이기 ■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과 예방 ■ 돈 헛그루 사료포장 물 뺀 도랑 정비 ■ 중부지방 초지 1차 웃거름 주기 ■ 남부지방 유채, 귀리 파종 ■ 누에 동충하초 재배 준비 ■ 느타리버섯 불재배 임상, 영지버섯 원목 재배 ■ 약용작물 파종준비, 뽕발용 퇴구비 확보
농업기계 생활자원	■ 트랙터 사용 전 점검 - 냉각수와 부동액 점검 - 엔진과 각부 오일 점검 ■ 보관 중인 농기계 부식 방지 - 스프링, 레버류 등에 오일 바르기 ■ 연간 생활계획 세우기, 환절기 건강관리 ■ 설 차례상 처리기와 성묘하기	■ 트랙터 사용 전 점검 - 배터리 보충과 충전 - 엔진 시동 후 경고등 소등 확인 - 5~10분 동안 공회전으로 정상가동 확인 ■ 고추장 담그기 ■ 대보름 맞아 행사 참여



다는 것입니다. 작물보호제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더니 이견 또 무슨 말이나고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사용하는 것은 대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꼭 필요할 때에만 약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나 약사가 처방한 약량을 지켜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작물보호제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작물보호제의 독성이 낮아졌다고 하여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독성이 낮아도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가 작물보호제 자체의 독성보다는 사용 시기나 사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작

생활주변 물질과 농약의 독성 비교

독성분류	생활주변물질 LD50	농약
맹독성	보툴리누스(botulinus) : 0.00000032 / 식중독균의 독 테트로도톡신(tetrodotxin) : 0.0085 / 복어독 아마니타톡신(amanitotoxin) : 0.3 / 광대버섯독	없음
고독성	니코틴(담배의 성분) : 24 캡사이신(고추의 매운 맛 성분) : 60~75 카페인(커피, 차의 성분) : 174~192	3품목
보통 독성	아스피린(의약품) : 1,000	Chlorpyrifos 25WP 등 173 품목
저독성	소금 : 3,000~3,500 에틸알콜(술의 성분) : 7,000 설탕 : 29,700	Bensulap 50WP 등 1,294 품목

자료출처 : 한국작물보호협회



코레옵시스 변이 개체 선발 작업중인 박세경 연구원

세상에 없는 새로운 꽃을 만들어 내는 일

품종개발 연구원으로서의

히로애락 喜怒哀樂

글·사진 박세경 신품종개발 연구원

품종개발 연구원의 1년은 어떻게?

세상에 없는 새로운 꽃을 만들어 내는 일이 즐겁기도 하고 속타기도 했을터. 연구원의 삶을 히로애락으로 정리한 글에서 심정을 알 것 같다. 그 속으로 들어가 속내를 들여보자.

희(喜) 사회생활의 첫걸음

2010년 4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과선배님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 회사에서 연구원을 뽑아, 후배 추천해 달라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 지원해 볼래?" 많은 고민을 했다. 아직 졸업도 못했고 사회생활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면서 우리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야생화를 생산하고 연구하고, 조경시공까지 하는 회사였다. 야생화는 강의시간에 사진으로 본 것이 전부였고, 길에 나는 잡초 이름도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 그런데 야생화 연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걱정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호기심이 더 커져 결국 면접을 보기로 결정했다. 면접을 보기 위해 분당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우와~ 나도 이제 이런 멋진 도시에서 일하는 건가? 설레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야생화 회사라고 알고 왔는데 꽃이 하나도 없네. 뭐지? 처음 우리꽃 박공영 회장님과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연구, 개발중인 품종을 해외바이어에게 설명

과선배님이 이천으로 한 번 더 면접을 가야한다고 했다. 선배님 차를 타고 이천으로 향했다. 점점 건물들이 낮아지고 논, 밭들이 나오고 주변에 가게하나 없었다. 하우스가 많은 곳에 도착했다. 설마... 여긴가? 이곳이 본사이며 내가 앞으로 일할 곳이라고 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과연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 꽃에 대한 많은 것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입사하기로 결정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다.

로(怒) 분홍색과의 전쟁

입사하자마자 처음 만난 꽃은 코레옵시스(*Coreopsis rosea*)였다. 코레옵시스를 소개해주기 위해 과장님께서 육묘장과 모주밭으로 데려가주셨다. 첫인상은 '화려하다' 였다. 앞으로 내가 도맡아 연구할 꽃이라고 하셨다. 다른 연구원 분들은 같은 분홍색의 코레옵시스를 보면서 '이거랑 저거랑 너무 다르지 않아? 이거 너무 이쁘다'라며 의견을 나누실 때,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내 눈엔 그냥 전부 분홍색으로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



우리꽃에 방문한 해외바이어(왼쪽에서 세번째 박세경 연구원)

내가 몇 년간에 걸쳐 개발한 '코레옵시스 품종등록증'을 처음으로 받아 본 날은 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개발된 품종을 28종 출원하였고, 이중 16종이 등록되었고, 1종은 거절되었다.

복되다보니 내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내가 보는 안목이 없나? 연구 일에는 맞지 않는가보다'라고 자책을 할 무렵, 뜨거운 여름 어느 날 내 눈에도 뭔가 다른 분홍색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눈에 하루하루 달라 보이는 코레옵시스를 발견하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홍색 말고 다른 색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지도 생기게 되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코레옵시스와 씨름하며 겨우 색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꽃잎 모양이 다른 코레옵시스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모양이 달랐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것이다. 코레옵시스와 좀 더 친해지니 줄기, 잎 등등 달라 보이는 게 점점 많아졌다. 아이쿠, 관찰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도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것이 재밌고 흥미로웠다.

애(愛) 죽이고 살리고, 할 일도 많고

입사 후 신품종 육성 방법을 배우고 변이가 발생하는 코레옵시스 개체들을 보면서 뿌듯하면서도 고정 작업을 시키기 위한 업무는 배가 되었다. 원종에 돌연변이를 발현시키기 위하여 최소 5,000개체의 삼수를 인위적으로 방사선 처리나 돌연변이 물질(EMS, colchicine)을 처리하여 변이를 유기시키고, 변이가 발생하는 모든 가지를 채취하여 증식시키고, 이 중에서 신품종으로 가치가 있는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후, 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보통 인위적인 돌연변이를 처리한 후 노지에 식재하여 변이 관찰을 1~2년 정도 한다. 돌연변이 유기 육종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 주로 방사선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최소 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변이체 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이 개체를 고정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최소 2년이 걸린다. 모든 변이 개체는 원종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원종으로 돌아간 줄기는 계속 잘라버리고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처음에는 1개체, 2개체, 점점 늘어나는 변이에 정신이 없었다. 나는 무조건 변이가 발생해서 고정되면 신품종으로 등록이



하쿠산 카다로그에 실린 우리품종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신품종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만만치 않았다. 상품성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품종을 선발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심지어 변이 품종이 점점 많아지고 다른 품종들도 함께 말다보니 나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몇 가지 품종이 도태되는 일이 발생했다. 내 순간의 잘못으로 3년간의 고생이 단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이미 도태된 품종을 다시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회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 우리꽃 농장에 면접 보러 왔을 때의 기분처럼 눈앞이 캄캄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더 좋고 멋진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락(樂) 해외로 떠나는 내 새끼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처리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다. 그래서 어떤 원종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는 추측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또한 처리할 식물(원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고르는 노하우도 터득할 수 있었다.

내가 몇 년간에 걸쳐 개발한 '코레옵시스 품종등록증'을 처음으로 받아 본 날은 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개발된 품종을 28종 출원하였고, 이중 16종이 등록되었고, 1종은 거절되었다. 내가 개발한 품종들이 하루 빨리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욕심이



수출포장진행과정

생겼다. 이 전에도 우리꽃에서 개발된 코레옵시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일본에 수출해왔었다. 언젠가 나도 '내가 만든 품종을 해외에 수출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일본 바이어들이 내가 만든 품종이 마음에 든다며 시험재배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드디어 지금까지 더위와 싸우며 고생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돌아온 것이다. 수출일자가 잡혔다. '앗, 그런데 수출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경로로 수출이 되는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였다. 과장님께서 무역회사에 연락을 취해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해달라고 하셨다. 무역회사에 겨우 일정이 잡혔다. 이제는 또 검역신청을 하라고 하셨다. 다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식물 상태를 검역하기 위해서였다. '필요한 게 이렇게 많구나...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신품종이 개발되고 그 이후 수출이나 유통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식물삼수 수출과정은 보통 국립검역소에 검역신청을 시작으로, 삼수(삼목에 쓰이는 줄기)포장을 한 후 식물검역과 Pcertification(검역증)을 받고 난 후, 수출품목 invoice(청구서), packinglist(품목표) 등 수출 무역에 필요한 자료가 통과되어야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겨우 수출일정이 완료가 되었다. 보통 수출일자가 잡히면 주말도 없고, 밤샘작업을 하는 일이 많다. 그래도 내 새끼들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포장을 했다. 그렇게 나도 가보지 못한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보냈다. 일본 'Hakusan(하쿠



산' 사의 카다로그에 우리의 코레옵시스 사진이 매년 실리고 있다. 탄력을 받아 점점 많은 신품종 개발에 욕심이 생기고 노력하니 네덜란드와 호주에서도 시험재배요청이 들어왔다. 개발된 품종이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언어였다. 영어에 취약한 나는 외국바이어가 오면 얼어버리고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막상 내뱉을 수 없어서 매우 답답했다.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진작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 많이 후회되었지만, 어쩔 수 없다. 이제라도 해야지. 내 품종을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고, 올해 나의 개인적인 목표가 되었다. 201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네덜란드에서 로열티 관련 보고서가 들어왔다. 2013년도엔 90,000주의 로열티 금액을 지불했고, 2014년 올해에는 200,000주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드디어 지금까지의 신품종개발연구가 로열티라는 금액으로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낮은 금액이지만 네덜란드, 호주, 일본 이외의 다른 세계시장에 나가게 된다면, 그 로열티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원예품종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나는 장담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코레옵시스가 국내시장에도 널리 퍼지길 바라고 있다. 나는 앞으로 신품종개발연구는 후임 연구원에게 맡기고 '코레옵시스'라는 품종을 국내외로 알리기 위한 마케팅 업무에 대해 배우고 일할 생각이다. **G**



도심 속에 건강한 흙을 만들자 충북 괴산군 흙살림

글 김지혜 기자
사진제공 흙살림

도시농업 입문을 위한 기초 가이드

'흙살림'은 흙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건강한 생명력을 되찾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온 곳이다. 도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실천한다면, 유기농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에서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다고 '흙살림'은 말한다. 농사짓는 즐거움과 바른 먹거리 그리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위한 도시 흙살림 실천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도시 속에서 흙 가까이 하기

농촌처럼 큰 논밭이 없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다. 도시에서도 정원이 딸린 큰 집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흙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작은 텃밭은 물론 옥상, 베란다, 화단 등 작은 공간을 통해 흙을 만지고 밟으면서 흙과 친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흙을 가까이하다보면 생태적 삶의 소중함과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도시농업 관련 소핑물들을 통해서 상자텃밭, 주머니텃밭 등 소규모 재배를 위한 자재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취향대로 골라서 얼마든지 자신만의 텃밭을 꾸밀 수 있다.

2. 음식찌꺼기 등으로 자원 순환하기

우리가 매일 먹고 버리는 음식물찌꺼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훌륭한 퇴비가 될 수 있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퇴비가 되어 텃밭에서 발효되어 건강한 먹거리를 키워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된다. 또한 옥상, 지붕, 지하건물 등의 빗물을 모아 텃밭과 텃논에 사용한다면 역시 다양한 생명체를 키우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3.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먹거리 구입하기

사정상 직접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면 가능한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먹거리를 이용하도록 한다. 도시민들이 가까운 유기농 먹거리를 소비하면 우리 고장의 흙을 살리고 먼 거리를 오가면서 소비하는 에너지도 줄일 수 있다. 지역경제도 더 활성화되는 이점이 있다.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흙살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좋은 흙이란 무엇일까요?

흙의 주성분 10가지와 우리 인체의 주성분 10가지를 분석해보면 동일하다고 한다. 건강한 흙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먹으면 우리 인체도 건강하고 병든 흙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먹으면 우리 인체도 병이 든다는 말이다.

토양 속에 서식하고 있는 토양미생물을 예로 들어보면 건강한 흙 1g 속에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약 2억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토양에는 4천만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태초에는 약 1,000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했다고 한다. 조류, 사상균, 방선균, 박테리아, 효모, 바이러스 등이 공생하고 있는데, 이 중 900여 종이 유효미생물로, 100여 종이 유해미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유효미생물이 많으면 식물에게 중요한 아미노산을 비롯한 저분자핵산과 비타민, 호르몬 등을 분비하여 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맛과 양분함량을 높여준다. 그러나 뿌리 주변에 유해미생물이 더 많으면 각종 병을 일으켜 큰 피해를 입힌다. 따라서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는 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살아있는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3~5%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토양 유기물이란 부식이라고도 한다. 부식은 퇴비와 같은 유기물질이 토양 속에 들어가서 각종 미생물의 분해 작용과정에 의해 잔류 유기물과 미생물의 복합체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흙 10배의 양분과 일반 흙 6배의 수분을 흡수 보유해서 서서히 토양과 작물에 공급해주고 미생물의 먹이는 물론 활동을 돕고 분해 시에는 각종 미량요소를

공급해 주는 등 영양을 공급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유기물함량은 논이 2.2%, 밭은 1.9%로 필요한 토양유기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성분의 경우 최소한 5% 이상의 토양유기물 함량을 유지해야만 질소질을 별도로 공급하지 않거나 미량으로 농사가 가능하다.

퇴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지력(땅심)이 좋은 토양의 조건으로는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을 잘 흡수하면서도 잘 통과시키고 양분을 잘 잡고 있고 적절한 산도(pH)와 적절한 지온 유지 그리고 단립구조(때알조직)를 갖춘 토양을 들 수 있다.

땅심을 높이고 흙을 살리는 토양유기물의 공급원이 바로 퇴비이다. 잘 발효시킨 퇴비 속에는 토양 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미생물을 잡아먹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발생되어 토양에 뿌려줄 때 점점 그 땅이 좋아진다. 반대로 썩은 질 나쁜 퇴비를 주면 병원균이 그 속에 많아 오히려 토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잘 발효시킨 퇴비 속에는 하얀 눈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유익한 방선균이다. 방선균 속에는 스트렙토마이신, 테라마이신, 네오마이신, 오레오마이신, 페니실린 등의 천연 항생물질이 생겨 토양 속에서 나쁜 병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 좋은 퇴비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은 병 없이 맛과 영양이 풍부하게 자란다. 이런 양질의 농산물을 먹는다는 것은 천연 항생제를 먹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유기농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상자배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퇴비 만들기

우선 마당 혹은 옥상, 베란다에 음식물찌꺼기를 분해하기 위한 흙을 준비해 놓는다. 음식물찌꺼기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버려지면 오염원이 되는 음식물찌꺼기가 나의 화단을 아름답게 하고 텃밭을 푸르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된다. 음식물찌꺼기를 분해하는 것은 우리가 징그러워하는 작은 벌레들과 미생물들이다. 우리 대신 고맙게 수고를 해주는 이 작은 생명체들을 통해 생태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 적당한 용기(약 50리터 정도)에 거친 흙이나 톱밥, 왕겨, 깎고 난 잔디, 잡풀, 짚에 자른 짚, 발효흙 등을 넣어둔다. 음식물찌꺼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쓰면 좋다.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분함량은 60%정도가 적당하다.
2. 음식물찌꺼기가 나올 때마다 물기를 빼고 비닐이나 이쑤시개 등 잘 씌지 않는 것들을 골라낸다.
3. 번거롭더라도 음식물찌꺼기를 잘게 썰어서 준비해둔 흙에 골고루 잘 섞는다. 잘게 썰수록 미생물이 접촉할 면적이 넓어져 더 빨리 분해되고 발효도 더욱 잘 된다.
4. 재료를 섞을 때 시중에서 파는 발효제를 용법에 따라 적당량 뿌려주면 좋다.
5. 벌레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도록 헝겊으로 덮는다.
6. 20℃ 이상의 바람이 잘 통하는 구멍진 장소에 놓아두고 통풍이 뒤집어준다. 공기를 넣어주기 위한 작은 작업이지만 흙 속의 미생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주 해 줄수록 발효가 더 잘 된다.
7. 음식물찌꺼기가 흙의 절반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반복한다. 고기류가 너무 많으면 냄새가 심하므로 너무 눌러 담지 않도록 한다. 한 두 달 쯤 지난 후 냄새없이 검은 흙색으로 발효된 흙을 텃밭이나 화단에 뿌려준다. 그리고 다시 퇴비 만드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8. 흙이 없어서 음식물찌꺼기를 그냥 버릴 경우에도 물기와 이물질 등을 빼고 적당한 발효제를 뿌려서 분리수거하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상자배 수확



(상)사진전시의 배양제, (하)토종 종자가 거꾸로 전시돼 매달려 있다.

여름채소를 심기위한 동공텃밭 흙만들기

도시 속 공동텃밭을 운영하는 경우 본격적 봄이 오기 전에 미리 흙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토마토, 가지, 오이 등 대표적인 여름채소류는 노지에서 늦서리의 걱정이 없는 5월 초에 전후에 심는다. 사용하는 퇴비의 종류나 흙의 산도, 밀거름의 종류에 의해 작업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봄 경작을 위해 우리 밭의 흙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G**

1. 퇴비를 넣어 밭을 간다.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 퇴비를 넣고 밭을 간다. 질소성분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동물성 퇴비를 사용할 때는 석회자재를 동시에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석회는 암모니아가스를 발생시켜 채소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투입 1주일 정도 전에 넣는 것이 좋다. 식물성 퇴비는 질소성분이 적기 때문에 동시에 넣어두어 해가 없다.

2. 산도조절자재를 넣는다.

밭 토양도를 측정하고 산성인 경우에는 산도조절자재를 투입한다. 산성을 좋아하는 야채도 있기 때문에 재배하려는 야채의 적정 산도를 조사한 후에 산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퇴비와 동시에 넣으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밀거름을 넣기 1주일 전에 넣는다.

3. 밀거름을 넣고 이랑을 만든다.

채소가 생육할 때 필요한 양분을 밀거름으로 밭에 뿌리고 이랑을 만든다. 유기질비료는 씨뿌리거나 모종심기 1주일 정도 전에 넣는다. 유박 등의 미발효 유기질비료는 2~3주 전에 넣어 흙에서 부숙시킬 필요가 있다.

4. 종자 혹은 모종을 심는다.

꽃밭 Bed & Border

글·사진 손관화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교수(가드닝 전공, 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베드는 가운데 키 큰 식물을 심고 가장자리에
키작은 식물을 심어 조성된 꽃밭을 말한다.
보더는 위쪽에 벽이 있어 앞에는 키작은 식물,
뒤에는 키 큰 식물을 심는다. 주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꽃밭형태를 말한다.

베드와 보더를 만들어 보자

베드는 원형이나 사각형, 또는 당초무늬처럼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사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키 큰 식물을 심고 가장자리에 키작은 식물을 심어도 되며, 전체를 같은 초장의 식물로 심어도 된다. 그러나 보더는 뒤에 벽이 있어 한 쪽 방향에서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앞에는 낮은 식물을 심고 뒤에는 키 큰 식물을 심는다. 보더는 크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꽃을 심고 관리하다보면 만들기 좋은 크기가 있다. 잘 만들어진 보더는 초장을 저, 중, 고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앞에는 키작은 식물, 그 다음은 중간식물, 뒤에는 키 큰 식물을 심는다. 통상적으로 보더의 폭은 가장 큰 식물의 두 배 정도로 만들어 우아한 비를 가진 모양이 되도록 한다. 키가 큰 다년초들을 이용해 높이가 높은 보더를 만들 수 있지만, 꽃뿐만 아니라 꽃줄기도 아름답게 보여야 하므로 키 큰 식물도 1.5m

리벤다 꽃이 저 색이 변한 뒤에도 형태와 질감이 아름다운 스페인 아랑페궁전 정원의 꽃밭



여러 종류의 빨강색 꽃으로 식재한 2011 독일 연방꽃박람회의 꽃밭



넓은 공간을 여러 종류의 노랑색 꽃으로 가득 채운 2011 독일 연방꽃박람회의 꽃밭



정도 유지해주면 좋다고 한다. 보더의 식물이나 생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해 보더 뒤에 통로를 만들면 편리한데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략한다.

외국의 베드나 보더도 예전에는 한 종류의 꽃을 일정 간격을 둔 격자형으로 심었다. 요즘은 색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어 꽃의 색을 유사색이나 대조색으로 배치하거나 보더의 길이를 따라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변하는 스펙트럼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꽃을 심는다. 그러면서 형태적 특성도 이용하고 색의 조정을 위해 잎이 아름다운 초본식물도 같이 심는다. 또한 최근에는 풍부함과 변화감을 주기 위해 라벤다나 장미, 부들레야(*Buddleja*)와 같은 관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겨울에도 볼거리를 주기 위해 상록관목을 심고 있다. 베드와 보더에 심는 초화류는 같은 종류를 여러 포기 모아 심는데, 가드너들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군식하는 식물을 흠수로 모아 불규칙적인 형태로 심는다. 이렇게 보더의 앞으로 비스듬한 각도로 모아서 심는 식물군을 '드리프트' (drift)라 표현한다. 드리프트로 심을 때 보더의 폭은 3~4m정도 되어야 잘맞는다. 길이가 긴 보더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 보더 전체에 같은 식물군을 간격을 두어 반복해서 배치한다. 모아 심는 식물의 간격은 식물의 성숙한 크기에 따라 적정 간격이 있는데, 외국에는 식물도감이나 종묘상의 카탈로그에 식재간격이 잘 나와 있지만, 한국에는 지피식물용 묘종의 식재간격밖에 없는 편이다. 한 종류의 식물군과 다른 종류의 식물군 사이의 간격은 각 식물군의 간격을 합한 간격의 3/4 정도가 적절하다. 한 그룹이 40cm 간격이고 다른 그룹은 60cm라면 그룹간 간격은 75cm이다. 대부분 가드너들은 그룹을 너무 가깝게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에는 보기 좋지만 그 후 혼잡해져 숨아내게 되는데, 그룹간의 색이나 질감을 원래대로 조절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식물을 많이 심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 베드나 보드의 앞의 식물이 가장 중요하다. 꽃뿐만 아니라 잎도 아름답고 생장습성이 깨끗해야 한다. 램시아어(*lamb's ear*)와 같이 낮은 카펫과 같은 식물이 좋고, 중간식물은 뒤의 키큰식물의 아랫부분을 감추어 줄 수 있는 둥근형의 식물을 많이 선정한다. 점차적으로 키를 올리는 보더에서도 다년초의 높이를 어느 정도 불규칙적으로 만들면 관찰자가 멀리서 움직이면서 보더를 비스듬하게 볼 때 감추어져 있던 부분이 보이면서 변화감을 줄 수 있다. 색 뿐만 아니라 초화류의 형태와 질감을 조정하여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 수 있다. 초장과 색이 정해지면 같은 초장의 식물 중에서



영국 위슬리가든 메인 보더의 초화류



초장, 색, 질감이 다른 여러 종류의 꽃으로 식재한 영국 위슬리가든 정원의 한 부분



영국 위슬리가든 메인 보더의 초화류



영국 햄프턴코트성 정원의 베드



(상) 영국 위슬리가든 메인 보더의 초화류
(하) 영국 햄프턴코트성 정원의 보더

도 다양한 형태와 질감을 가진 식물을 선정한다. 초장과 질감을 조절할 때는 비슷한 식물을 같이 배치하는 것보다 대조적인 식물을 배치하면 시각적 효과가 더 크다. 루피니스(*Lupinus*), 델피늄(*Delphinium*), 디지털리스(*Digitalis*), 버바스쿰(*Verbascum*)과 같은 스파이크형 꽃은 핑의비름이나 안개꽃과 같은 편평한 꽃과 대조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숨털같은 안개초를 에린지움(*Eryngium*)과 같이 질감이 거친 식물 부근에 적절히 사용하면 눈에 띄이지만 과다하게 사용하면 단조로울 수 있다. 여러 가지 무늬의 잎과 고운 질감의 그래스류 등 형태와 질감이 다른 식물을 배치하여 대조의 느낌을 만들어보자.

일 년 내내 아름다워야 한다.

베드와 보더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것은 연중 오랜 기간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별로 꽃피는 다년초를 중심으로 잎이 아름다운 식물과, 월동은 안되지만 오랜 기간 꽃을 피우는 다알리아, 칸나, 마가렛(*Argyranthemum*)과 같은 식물과 몇몇 일년초를 포함시킨다. 또한 부들레야, 장미 등과 같이 좀 더 늦게까지 꽃을 피우는 관목들을 포함시켜도 된다. 장미와 헬레보라스(*Helleborus*), 베르게니아(*Bergenia*), 몇몇 휴



케라(*Heuchera*), 삼지구엽초(*Epimedium*), 패랭이와 같이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상록 다년초는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울에도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다년초, 특히 그래스류를 자라지 말고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관목, 특히 상록 관목들이 포함된 화단은 겨울에도 모양과 색을 유지한다. 그러나 관목들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했던 디자인을 유지하려면 잘 자라지 않거나 전정하기 쉬운 관목을 선정해야 한다. 월별로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베드와 보드를 만들기 위해 다년초의 개화기는 초장과 화색만큼 중요한데 아직 국내에는 정확한 개화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같은 공간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한다.

베드와 보드에 많은 초화류와 관목을 혼식할 때는 초장, 형태, 색, 질감과 같은 시각적 특성과 광, 온도, 수분, 토양과 관련된 생육특성뿐만 아니라 식물의 타감작용(他感作用, allelopathy)을 고려해야 한다. 타감작용은 식물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이 이웃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베드와 보드에서처럼 공간에 여러 식물을 같이 심으면



생육이 좋지 않는 식물이 생긴다. 소나무나 단풍나무 등 목본류와 잡초들의 타감작용에 대해 알려진 자료들이 있는데, 정원에서 이용되는 많은 초화류의 타감작용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아 해바라기(*Helianthus annuus*), 몇몇 살비아(*Salvia*), 팔라리스(*Phalaris*), 센토레아(*Centaurea*), 버베나(*Verbena*), 쑥속 식물(*Artemisia*), 휘버퓌(*Tanacetum*), 바시아(*Bassia*) 등의 식물에 대해 알려져 있다.

월별 또는 계절별로 지속적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베드와 보드에서는 같은 공간에 여러 식물이 뿌리를 묻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점유하고 있는 토양층의 깊이의 차이로 인해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식물도 있고, 같은 공간에서는 도태되어 버리는 식물이 있다. 경험이 많은 가드너들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베드와 보드의 초화류 식재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자료들이다. **G**

정원은 문화에서 시작된다 정원으로의 첫걸음



글·사진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세상에 똑같은 정원은 존재하지 않고, 한 정원에서도 하루가 지나면 같은 모습을 볼 수 없다." 는 영국속담에서처럼 정원은 변화한다. 그 변화를 기다려 주는 인내와 그 변화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한다.

'타사의 정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예전보다 사람들의 정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불과 5년 전 영국으로 유학 갈 때만하더라도 정원디자이너를 공부하겠다는 나를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지만 정원디자이너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정원은 '유행의 키워드'이자 '동경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디자이너가 영국의 유명한 첼시플라워쇼(정원박람회)에서 금상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순천 정원박람회가 개최하면서부터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힐링'이란 단어와 함께 정원과 관련된 것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정원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 사람들은 타사 할머니가 만든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할 것이다. 외국의 화려한 정원을 보면서 한번쯤 저런 정원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마도 무턱대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정원을 가질 만큼의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뿐일까? 정원은 기다림이 필요한 공간이다. "No two gardens are the same. No two days are the same in the garden." 세상에 똑 같은 정원이 존재하지 않고, 한 정원에서도 하루가 지나면 같은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영국의 속담에서도 나타나듯이, 항상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생명을 가진 식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기다려 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빨리빨리'가 익숙해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정원을 의뢰해 시공을 맡긴 후 '완~'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진 정원이 되길 원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 서적에서 보았던 모습처럼 꽃이 풍성하

고 나무가 울창하길 바란다. 하지만 정원은 그렇게 한 순간에 마법처럼 만들어질 수가 없다. 똑같은 정원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는가에 따라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원을 즐기고 싶다면 식물 하나하나가 변해가는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국은 정원이 생활화된 나라 중 으뜸이다. 그 이유는 아마 접할 수 있는 정원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인들의 거주 형태는 아파트보다는 10평 정도의 정원을 가진 주택이 많고 주택가 근처에 공원이나 조그만 자투

리 공간에 만들어 놓은 정원 또한 많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보면 그곳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 책을 읽는 사람, 데이트를 하는 사람 혹은 점심시간에 일터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정원에서 뛰어다니고 식물들을 유심히 살핀다. 어렸을 적부터 정원이나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환경을 찾은 것은 그들에게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렇듯 정원은 어느 한 순간에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깊숙

영국의 전형적인 주택모습. 뒷마당은 정원과 휴게공간으로 쓰이며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국 Chelmsford에 있던 영국 친구의 집. 늘 앞마당을 꾸며며 휴일을 즐긴다. 대문 앞의 정원이 자신의 얼굴을 꾸미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는 벌써 환함을 비추고 있다.

거실에서 내다볼 수 있는 테라스 공간에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빨간색 제라늄도 오랫동안 기르면서 번식시킨 것. 테라스에 앉아 흥차를 즐기며 수도따는 것이 하루의 일과이기도 하다.

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

영어로 문화는 'Culture'로 라틴어 'Cultus'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재배하다', '경작하다' '자적인 개발을하다'의 의미로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과 행동 방식 중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배우고 전달받은 모든 것들, 즉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원문화란 한번 반짝하고 유행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의 김장문화처럼 소수의 계층이 누리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원은 부자들만이 가지는 것' 혹은 '여유로움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영국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정원이 3,500개가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정원만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정원여행'이 있다. 영국왕립원예학회(Royal Horticulture Society)나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라고 하는 단체가 보호 관리하는 정원과, 개인이 직접 만들고 관리하면서 입장료만 받는 정원 등 다양하다. 버스투어로 하루에 2개정도의 정원을 보고,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패키지 투어도 여럿 있다.

정원을 공부한다고 유학을 간 나에게 정원여행은 필수적이었다. 처음 정

원여행을 시작했을 땐 젊은이는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봐도 노인관광코스라고 생각될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다. 어린이들이 데리고 온 부모들부터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원여행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정원을 즐기는 법에 대해 배운 영국사람들이 '정원의 나라'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주말이 되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식물원이나 수목원 등으로 견학을 가기도 하지만 가볼 만한 장소가 풍족하지는 않다. 그저 쉽게 집 밖으로 나가 즐길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도 지금의 현실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개발보다는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자투리 공간과 같은 주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정책이 생겨나고 있지만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정원문화를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이 새로운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첫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원이 풍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파트의 베란다 혹은 건물의 옥상 등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저 식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말로 차근차근 생활 속으로 정원을 끌어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 G

고양이의 눈을 닮은 갱이눈

글·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아생화 사이트운영
<http://www.skyspace.pe.kr>



집사살영한 갱이눈



우리지어 피어 있는 탈갱이눈

'갱이' 는 '고양이' 의 사투리로 보석함 같은 꽃 모양이 고양이의 눈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 꽃송이와 살짝 보이는 안쪽의 수술이 어둡 속에서 빛나는 고양이 눈처럼 생겼다.

이른 봄에 노란색으로 피는 꽃

겨울 기운이 채 사라지지도 않은 양지쪽 바위절벽 근처에서, 작은 꽃이 노랗게 웅기죽기 모여 피면서 봄을 맞을 채비를 한다. 대개는 물기가 축축한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데,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꽃이다. 잎은 마주나며 둥그런 모양으로 생겼고 가장자리에 둥근 톱니가 있다. 종자는 6월에 검은색으로 익으며, 술잔 모양의 열매 속에서 달걀 모양을 하고 있다.

보석함 같은 꽃 모양이 고양이 눈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

'갱이' 는 '고양이' 의 사투리로 보석함 같은 꽃 모양이 고양이의 눈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 꽃송이와 살짝 보이는 안쪽의 수술이 어둡 속에서 빛나는 고양이의 눈처럼 생겼다. 갱이눈은 노란색의 꽃을 지니고 있는 모습도 예쁘지만, 꽃이 지고 난 후에 결실을 맺어놓은 모습이 마치 작은 그릇에 모래를 담아놓고 소꿉놀이를 하는 것 같아 더욱 앙증맞기도 하다. 언제 보아도 탐스럽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다.

“ 갱이눈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달는 탄력을 이용하여 씨앗이 멀리까지 튀어나간다. ”

갱이눈의 탐사

물기가 많은 바위 위나 절벽 아래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들을 사진으로 예쁘게 담기가 아주 어렵다. 바위가 미끄러워 발을 잘 붙일 수가 없고, 절벽 난간에 몸을 기대어 안전하게 자세를 고정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몸이 편안하게 고정된 후에 셔터를 눌러야 사진이 예쁘게 찍히는데, 불편한 자세로 찍으려니 좋은 사진이 나오기가 좀처럼 어렵다. 보통은 공을 많이 들일수록 예쁜 사진이 나오게 마련인데, 암만 공을 들어서 찍어도 쓸 만한 사진 한 장 얻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자생지의 조건에 따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찍는 일이 허다하기도 하다.

갱이눈이 씨앗을 퍼뜨리는 방법

술잔처럼 생긴 갱이눈의 열매 속에 달걀처럼 생긴 작은 씨앗이 담겨 있다.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달는 탄력을 이용하여 씨앗이 멀리까지 튀어나간다. 빗물이 떨어지면서 튀는 물방울보다 더 멀리 튀어나가는 씨앗의 모습은 신비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멀리까지 튀어나가지 못하고 남은 씨앗들은 나중에 몸이 삭을 때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 갱이눈이 씨앗을 퍼뜨리는 생장법으로 멋진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곤충을 유혹하는 방법

갱이눈의 꽃이 아주 작아서 곤충들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곤충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마술을 부린다. 꽃이 필 때에는 꽃 주변의 잎 2~4개가 꽃처럼 보이기 위해 노란색으로 변한다. 갱이눈의 꽃이 큰 꽃처럼 보여서, 곤충들이 멀리에서도 갱이눈의 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펼치는 것이다. 곤충들이 이 꽃 저 꽃을 옮겨 다니다가 가루받이가 완료되면 꽃 주변의 잎은 다시 원래 상태의 녹색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색깔인 녹색으로 돌아와서 갱이눈의 잎은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튼튼한 씨앗을 탄생시킨다. 식물의 꽃은 생식수단이기 때문에, 갱이눈은 곤충을 끌어들이면서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번식전략을 교묘하게 쓰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갱이눈 종류가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금갱이눈의 경우가 가장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갱이눈의 종류별 분류

갱이눈 종류의 우리들은 얼핏 보아서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잘 관찰해 보면 서로 다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 기본종인 갱이눈은 암자레가 서로 마주나고 온몸에 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자생지는 강원도 이북의 높은 산지인데, 주로 백두산 지역에서 자라는 것 흔히 볼 수 있다. 갱이눈의 분류는 크게 암자레와 털의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 잎이 마주나는 것은 기본종인 갱이눈을 비롯하여 탈갱이눈, 흰털갱이눈, 금갱이눈, 선갱이눈, 제주갱이눈, 가지갱이눈, 바위갱이눈 등이고, 잎이 어긋나는 것은 산갱이눈, 애기갱이눈, 오대산갱이눈 등이다. 털이 많은 것으로는 털갱이눈과 흰털갱이눈을 비롯하여 금갱이눈, 제주갱이눈, 산갱이눈 등이고, 털이 없는 것으로는 갱이눈, 선갱이눈, 오대산갱이눈 등이다.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

올겨울엔 눈이 제법 많이 왔다. 초겨울부터 아주 낮은 기온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한 순간이다. 고양이 눈처럼 생긴 갱이눈 종류들도 바위틈에 웅크리고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지만 봄은 곧 우리들 가까이로 성큼 다가올 것이다. **G**



꽃을 선물해도 괜찮은 날,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줄 꽃 10선

글 황주리 기자

연인들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꽃과 함께 하면 더하겠지요.

발렌타인데이(사건엔 밸런타인데이라 하지만 일반화된 발렌타인데이로 함)에 어울릴만한 꽃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슴 설레는 날, 더 빛나게 해줄 꽃, 의미있는 꽃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안목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이들이 꽃을 선물해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그 날, 평소 꽃을 선물해 주고픈 사람이 있었는데 차마 꼭스러워 건네지 못했던 이가 핑계삼아 꽃을 선물할 수 있는 그 날, 바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 올 2월 14일은 바로 '용기' 내어 '꽃'을 선물할 수 있는 '발렌타인데이'다.

2월 14일은 고대 로마의 그리스도교 성인 발렌티누스(Saint Valentine, 영어로는 발렌타인)를 기리는 날이다. 이 축일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3세기 무렵 로마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가 군대의 기강이 문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병사들의 결혼을 금지했을 때 발렌티누스라는 사제가 이 금지된 법을 어기고 혼인성사를 집전하였다가 순교한 날이라는 설이 있다. 두 번째 설로는 이 날이 새들이 발정(發情)을 시작하는 날로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이 날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풍습으로 이어졌으며, 여성이 남성에게 구혼하여도 괜찮다는 관습도 전해져 내려온다. 서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풍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여도 좋다는 속설이 퍼져있기도 한데, 이는 일본의 제과 회사의 상업적 마케팅에서 비롯되어 한국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렌타인데이가 여성이 남성에게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아닌 것을 이 기사를 통해 배웠다면 성별을 불문하고 바로 사랑하는 이에게 꽃을 선물하는 '용기'를 내보자. 용기는 했지만 무턱대고 아무 꽃이나 선물해 낭패를 겪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들에게 10가지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꽃을 소개하고 또 이 꽃들이 상징하는 뜻을 귀띔 해주겠으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1. 장미 (Roses)



장미가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꽃이라는 사실은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다. 아무래도 빨간색의 장미가 사랑, 로맨스, 아름다움, 완벽함이라는 단어들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꽃이 가격 높기로 으뜸간다

는 사실은 꽃 재배자들이 장미가 제 때 피어날 시기를 조절해 2월 14일에 활짝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도 있다. 그래야지만 값도 비싸게 부를 수 있고 '인기있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2. 노란송나물데이지 (Gerbera Daisies)



데이지과의 꽃은 아름다움, 결백함, 순수함을 상징한다. 특히 '거베라'라고 불리는 국화과의 데이지들은 크기가 큰 머리 부분과 활기찬 색을 가진 특성 때문에 '활기참'이라는 상징을 가지기도 한다. 어떠한 사이라도 받으면 기분 좋은 꽃이 바로 이 '노란송나물데이지'라고 한다.

3. 튤립 (Tulips)



튤립은 '완전한 사랑'을 상징한다. 우아하고 누구나 딱 보면 척하고 알아맞힐 수 있는 꽃,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꽃이며 17세기 가장 많이 개화했던 곳인 네덜란드와도 항상 연관되어 나오는 튤립, '편안함'과 '따뜻함'을 뜻하기도 하는 튤립 또한 클래식한 발렌타인 선물로서 선물하기에 적격이다.

4. 알스트로메리아 (Alstroemeria)

페루비안 백합으로도 알려진 이 꽃은 생명이 오래가기로 유명하며 줄기가 특히 눈에 띄는 꽃이다. 이 꽃은 '우정', '헌신'을 뜻하는 꽃이며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왕성하게 피어난다. '연인'이 되기 위해 고백할 생각이라면 이 꽃을 선물하면 친구로서의 우정을 지속하자는 메시지로도 인할 수 있으니 꽃이 아무리 매혹적이어도 선물할 때에는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5. 카사블랑카백합 (Casa Blanca Lilies)

이 동영적인 백합과의 꽃은 '아름다운 품격' 그리고 '스타일'을 상징한다. 사람들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카사블랑카를 멀리서도 향기로 알아맞히는 사람이 많다. 한 유명한 남성잡지에서는 이 꽃을 선물하는 남성을 가리켜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값비싼 백합을 선물할 줄 아는 남자는 받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수준 높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6. 난초오키드 (Orchids)

많이는 찾아볼 수 없는 상당히 귀한 난초는 '사랑', '아름다움', '사치스러움'과 '힘'을 상징한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 난초들은 '이국적인 유혹'이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장미꽃 12송이의 사랑 표현보다는 더 '아성적'이며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바로 이 난초를 선물하면 되겠다.

7. 카네이션 (Carnations)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아니어도 카네이션을 선물해도 괜찮다. 카네이션은 본래 '매혹'과 '새로운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카네이션이 여태 노인과 손윗사람에게 선물하는 꽃으로 자리 잡았는데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가격선도 적당하여 선물하기에 아주 적격이다.

8. 해바라기 (Sunflowers)

'따뜻함'과 '행복함'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는 말 그대로 해처럼 따뜻하고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좋다. 물론 샛노란 꽃잎들이 여름을 떠올릴 수 있을 지 몰라도 해바라기는 365일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꽃이다.

9. 아이리스 (Irises)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짙은 남색이나 보라색 아이리스는 충성을 뜻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로 파란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나오는 아이리스는 색과 관계없이 '신뢰'와 '희망'을 상징한다. 전문가들은 빨강색 튤립과 데이지를 섞어 "끝내주는 콤비네이션"을 꽃다발로 만들어 선물할 것을 권한다.

10. 치자나무꽃 (Gardenias)

향기로 가득 찬 치자나무의 꽃들은 그 향기에서 말 해주듯 '순수함', '기쁨'과 '깊고 오래된 사랑'을 상징한다. 이 꽃을 선물하는 이는 분명 꽃을 받는 이와와 남모를 역사와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값이 비싸기도 하고 단일종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더 의미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정말 이 꽃이라면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G**



집 안에서 텃밭을 만들어보자 식물가습, 공기청정, 식물재배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나만의 텃밭

글·사진 황주리 기자



텔런트 고현정은 피부보습을 위해 추운 겨울일지라도 히터를 켜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만큼 건조한 환경은 피부에 취약일 뿐더러 감기에 걸리기 최고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겨울은 '건조함'과의 싸움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안 그래도 덜컥 걸려버린 감기 때문에 기침이 끊이지 않는데, 무작정 보일러만 주구장창 떼고 있는 당신이라면 집안의 '온도' 자체보다는 '습도'와 '청정'에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 것이다.

얼마 전 우리가 겨울의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가습기' 사용에도 적신호가 켜졌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에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이후 주춤했던 습도유지용 가전제품 시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대체용품을 발굴해 내는데 업계에서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중 에어워셔라는 제품이 언론을 통해 크게 소개된 바 있는데, 에워워셔란 물레방아처럼 생긴 디스크가 제품 안에서 돌아가면서 공기와 물을 접촉시켜 먼지는 빨아들이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다시 실내로 배출하는 나만의 '자연' 기화 방식의 신식 가습기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논리'를 따져본다면 자연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제아무리 자연방식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계는 기계이고 또 그 기계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고, 곧 다시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연만큼 사람의 게으름을 이해해주는 것도 없다.

매 번 수건을 빨아 침대 밑에 걸어두는 것도 한두 번 일이다. 정말 마음 놓고 집안 공기의 적절한 습도와 청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연에게 의지하는 방법이 최적이 아닐까 한다.

'힐링76'이라는 미니실내정원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자연 습기생성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제품에 제공되는 판에 심는 관엽식물들은 열대우림지역이 본래의 자생지로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그린텃밭식물가습기'라고 불리는 힐링76은 '식물가습, 공기청정, 식물재배'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준다. 이 제품은 폭포수 원리를 이용하여 음이온을 발생시키며 자연 가습기능을 수행한다. 물에 산소를 공급하는 원리로 식물 자동재배도 가능하다. 또한 수경재배가 가능한 식물과 일반 식물들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분 바닥에 일정량의 물이 흐르는 구조로 되어있어 새싹재배 및 염채류 재배가 가능하다. 바닥에 부직포가 있어 수분저장자의 기능도 함께 한다. 식물에 필요한 수분도 자동공급하며 공중습도 유지로 식물이 항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힐링76은 분수대의 물 입자에 의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제거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산분수봉을 좌우로 돌려 가습량 조절이 가능하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전기사용요를 염두해 두

어야겠다. 하루 24시간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달에 5.76KW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5KW 당 가정용 기본요금 400원인 점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된다. 또한 물에 공기가 들어가면 분수의 모양이 작아지거나 물이 불규칙하게 나오고 모양이 갈라져 나오는 현상이 야기된다. 이 때 물을 보충해주면 된다.

주로 실내에서 적응하기가 쉬운 수경재배가 가능한 '반음지' 식물을 심으면 좋는데 식물로는 스칸답서스, 싱고니움, 나비난초, 아이비, 테이블 야자, 홍콩야자, 아래카 야자, 드라세나, 행운목, 스파트필름, 금전수, 인도아고무나무, 문라이트, 피토니아, 칼라코에, 산호수를 추천한다.

가습효과를 위한 식물배치는 행운목과 황금죽, 워터코인, 스칸답서스, 아래카 야자, 해피트리, 엔조이 스킨을 심으면 좋고, 거실에 빛이 충분한 남향이라면 피톤치드 효과가 있는 율마를 비롯한 반양지 식물도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올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건강한 환경을 위하여 천연가습기로 집안을 '변신'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G**



민초들의 '삶의 애환' 이 살아있는 집풀생활사박물관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짚과 풀로 만들어진 '생활과 밀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서 체험해보면 좋을 듯해 저희 가든인에서 소개합니다.

글 가든인 편집팀
사진 집풀생활사박물관 제공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짚은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귀한 소재였습니다.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짚으로 날개를 엮어 초가지붕의 목은 짚을 견어내고 이영을 올렸습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가 새거나 반갑지 않은 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를 말리거나 나락을 말릴 때는 명석이 요긴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잔치 때 손님맞이용으로, 명절 때 웃놀이용으로, 쓰임새가 손가락으로 다 꼽기 어려웠습니다. 망태기는 큰 가방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소의 먹이인 풀을 베어 잔뜩 넣어가지고 오시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콩, 팥 같은 잡곡이나 작은 농기구를 넣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도롱이는 TV에서 봤을 거예요, 비올 때 어깨에 걸치는 비옷이지요. 그 외 방석, 짚신, 소쿠리, 새끼줄, 동아줄, 삼태기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만들어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물건에 있으면 돈을 내고 구입합니다. 옛날엔 그 많은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농한기엔



삼삼오오 사랑방에 모여앉아 수다를 떨며, 명식을 짜고 새끼줄을 꼬았어요. 주로 남자들이 담당했지요. 아낙네들은 짚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향아리를 소독한 다거나 청국장, 메주를 띄울 때도 반드시 벼짚을 썼고, 아이를 출산하면 문에 치는 금줄도 벼짚으로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두트레방석, 깔방석, 망태기, 삼, 맥서리(짚으로 날을 훌훌하게 결어서 벼섬 크기로 만든 그릇), 동구미(바구니처럼 쓰는 물건) 등 짚으로 얹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뿐인가요 초가지붕의 이엉, 용구새(초가지붕이나 담장의 맨 위에 올라앉은 짚으로 엮은 마감재)는 말할 것도 없고, 닭동우리, 개집, 돼지우리, 연료, 소의 사료, 비료 등 짚을 쓰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쓰인 짚이 지금은 어떤가요, 박물관의 체험장에서나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달

라졌습니다. 쓰는 물건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물건들은 늘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이 써왔던 소박하고 정겨운 물건들이 마음을 이끕니다. 지금은 사라진 소박하고 정겨운 우리네, 살림살이들이 전시되어 있는 집풀생활사박물관은 우리 민초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관대작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농사를 짓고 살아 가던 그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한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지푸라기 하나에도 생명을 부여하고, 풀 한 포기에도 애환과 노고가 들어있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라져 가는 게 아쉽습니다. 부모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훌륭한 체험기회와 더불어 간만에 부모님, 조부모님의 삶의 지혜, 삶의 마당을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교육의 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G

환경도 생각하고 돈도 벌고 생활 속 알짜정보

에코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

글 · 황주리 기자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 에코마일리지.

가정, 학교, 기업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아낀 만큼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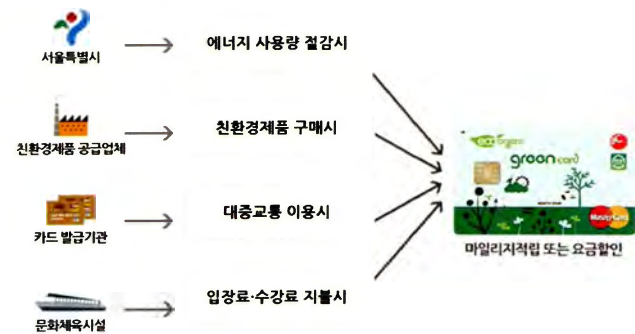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고 생활혜택도 받아가는 에코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기후변화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독자라면 더욱 주목해서 봐야겠다. 기후변화를 단순한 지구 온도상승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더더욱 주목해야겠다. 몇 달 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도 말라리아가 창궐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아프리카지역도 그리고 더 가깝게는 작년 홍수로 인한 강남침수 등이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전조전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고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배운 당신이 있다면, 조금 더 피부로 와 닿을 지 모르겠다. 인류의 재앙과 지구의 멸망을 불러오기에 앞서 기후변화는 지구의 온도를 조금씩 상승시킬 것이며 지구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갈 때 지구인구의 1퍼센트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나와있는 사실이다. 지구 표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 중 이상기온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탄소로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인간의 무지막지한 에너지 낭비와 생활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온실가스는 현재 여러 형태로 배출되고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기 및 제품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켜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수면상승과 이상기온 현상 발생 등으로 앞서 말한 자연재난을 발생시킨다.

또한 가장 잘 알려진 양극의 빙하 해빙으로 해수면을 상승시

에코마일리지 적립 흐름



킬 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그리고 특히 해수면 상승 시 가뭄 및 물 부족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며 기후대의 변화로 전염성 질병체의 분포변화와 전염병 이동의 증가로 전세계인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더 가깝게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인류의 재앙인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까? 늦추기 위해,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일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시민들을 위해 '아낀만큼 돌려준다'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에코마일리지란 무엇인가?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는)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며 가정, 학교, 기업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한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 가입(성명, 주소, 고객센터)하면 매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수집 및 관리된다. 수집된 에너지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회원에게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될 수 있게 해주는 인센티브 제공 제도이다.

기후변화의 '대응' 대책으로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이다. 제 5의 에너지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에너지 절약실천이 건물 에너지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공원녹지조성, 집단에너지보급, 친환경교통이용, 옥상녹화만큼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에코마일리지에 처음 가입 시 전기, 수도, 가스 고액변화로 에너지 사용량이 수집되면 6개월 주기로 최근 6개월 대비 직전 동기간 2년 평균 사용량을 계산하여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회원은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한다.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되면 회원 본인 명의의 발급된 에코마일리지카드에 최대 50,000P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전환, 포인트전환, 상품구매, 통신요금결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가정은 기준 사용량(최근2년) 대비 6개월간 월평균 전기, 수도, 가스(지역난방 포함) 중 2개 항목 이상의 온실가스를 10%이상 감축한 가정이 선정되며, 단체로는 기준 사용량 대비 감축실적이 우수한 학교, 아파트단지, 상업건물 등 연간 70개소가 선정된다.

혹시라도 놓치고 있었던 가든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고 생활혜택도 받아가는 것이 좋겠다.



한국정원문화협회의 창립에 즈음하여

2014년이 되었습니다!

힘겨운 시간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세월은 어느새 살갗이 지나가버려 그러한 질고의 고통을 저만치 밀어내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할 때가 있을 겁니다. 새해에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새롭고 역동적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믿음직스런 시진핑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구를 인류공동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함께 만드는 노력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정원이 중국에서도 시대적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작년 연말(12월 16일)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정원문화협회라는 단체를 창립하여 본회를 발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등록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본회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쪽에 우선 2개소 정도의 지회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분야의 원초적이고 가장 전통적이며 유구한 가치인 '정원'이란 이름 되찾기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공공공급물량시장의 규모에 의해 어느 샌가 파묻혀 있었습니다.

정원의 또 다른 이름인 공공적 공간을 지칭하는 '공원(Park, 사실은 '공공정원' 인데도)이란 말로 대체되어 버렸고, 오픈스페이스 개념의 '녹지'라는 이름에 함몰되어서 가장 근원적인 표현을 한동안 상실했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용어를 다시 꺼내어 쓰고 답아서 우리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덴동산부터 시작된 가든의 역사는 성서적으로는 '인간의부환경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제외한 모든 외부공간은 원초적 정원이었으니까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유사종교들의 극상의 공간들 즉, 궁극적 낙원의 모습은 모두 정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천궁과 천당, 극락정과 무릉도원, 이슬람의 잔나 등등

정원(Garden)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리리 또는 위요라는 의미의 Gan과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는 eden에서 유래되었듯이 정원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안전한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건축의 바깥 p.15 (진양교))고 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의 청사정원'이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록전에 이미 정원은 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공간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동양에서도 오랜 역사의 중국에선 진시황제가 기원전 255년경에 돌레가 12km나 되는 정원을 만들었다는 기록(정원의 역사 p.44~49 (자크 브누아 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은 받았지만 우리고유의 정원양식으로 발전시켜서 한·중·일의 각기 다른 독특한 정원문화를 이어 왔었습니다.

평양의 안학궁 공원(427년, 장수왕 15년)에 대한 삼국사기기록과 백제의 궁남지(634년, 무왕 35년), 관북리 정원, 익산의 왕궁리 정원이나 경주 동궁의 월지(안압지:674년 문무왕 14년)의 경우 1만평이 넘는 규모에 거의 절반크기의 면적을 조성했다고 합니다.(건축의 바깥 p.31 (진양교)) 이러한 정원의 역사적 전통은 조선시대의 창덕궁 후원과 차경기법이 독특한 별서정원인 소쇄원으로 소소히 그 맥락이 이어져 왔었으나 구한말과 일제식민시대와 동란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 피해를 맞아 그 단절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의 물결이 밀려오기 전까지 거의 단절되었던 정원역사는 서양이 그러했듯이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왕궁이나 귀족,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사적 정원의 공간이 시민들에게 개방, 대외되면서 공공정원의 개념으로 발전하여 공원(park)이란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고 그것이 오늘날 근대 산업사회의 주요 정원의 역할을 대행해온 셈입니다.

60년 압축성장의 시대를 달려온 우리의 현실에선 사적 영역의



정원은 사치였고 그 규모역시 대단히 소규모로 제한적 시정일 수밖에 없었고 위화감의 대명사 공간이 어느새 되어 있어버렸습니다. 소위 별장문화의 별칭이 되었었죠. 그대신 경제성장 규모에 걸맞은 대중지향적 공공적 공원 녹지공간의 양적공급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우리의 공원디자인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토공원화계획과 한강종합개발계획, 신도시의 건설과 200만 주택공급 등의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을 일으켰고 경부고속도로를 위시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공공부문에서의 조정이란 분야에 상당히 많은 양적성장을 가져다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총 4조원이 넘는 공공부문과 함께 6조 3천억 수준의 조정시장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한말부터 단절된 정원은 압축성장시대까지 근 100여 년간 그 공급기능과 문화가 상실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선진국형 수준으로 올라온 작금의 시대가 다시금 정원에 눈을 돌리는 대중정원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원에 대한 개념과 역사적 흐름과 과정을 단편적으로 훑어본 내용인데 왜 다시 동시대에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치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와 성공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자유와 시민의 문화성숙에 따른 정원에 대한 갈망과 요구가 있다해도 '정원문화'나 '정원산업'이 꽃 피우기 위해선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즉,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주체와 주체의 형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주거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십 년 공동주택이라는 APT주거문화에 매몰되어 와서 이것 자체가 한국적 동시대 주거문화가 되어 버린 것도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60%수준이지만 도시민 위주로 계산했을 때는 그 수치는 확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제 수십 년간 APT주거에 익숙하고 신물이 날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 주택공급정책은 공동주택위주입니다.

정원문화는 저층, 저밀도의 단독주택형주거가 제대로 된 원형입니다. 이러한 현시대 주거상황에선 정원문화와 육성은 공염불이 되고 그림의 떡이며 정원에 대한 갈망에 대한 배신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정원문화협회의 창립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정인들의 본연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정원문화의 육성은 주거문화의 변화를 선행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본 협회는 차근차근 로드맵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창조경제의 성장동력 중의 하나가 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리드해가는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정원'이 조정분야의 기본업무로 돌아와서 그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제와 조직, 예산 등에 온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올 2014년이 그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조경인 여러분과 정원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정원문화가 꽃 피우기를 갈망하는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격려 속에 다함께 더불어 성숙된 선진시민사회로 발전해나가길 기원합니다. 다 함께 참여하여 선진적 주거와 정원문화를 꿈꾸며 나아갑시다. 한국정원문화협회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G



한국정원문화협회/(사)한국조경사회

회장 정주현

새우살과 연어살로 만든 만두



글·사진 윤자영 요리연구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월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 추위를 견디고 곧 우리에게 찾아 올 개나리와 진달래, 철쭉의 화사한 봄을 생각해 본다. 이번 호에 소개할 요리는 다름 아닌 만두다. 설에 가족들과 함께 먹는 만두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연구해 보았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먹는다는 덩섬과 한국 스타일을 섞어 새우, 연어살 만두를 소개하려 한다.



재료

청경채, 새우살, 연어살, 만두피, 일본 쓰유(없을 경우 간장과 미림을 1:0.5비율로 섞는다.), 올리브오일 약간, 버터 약간, 소금, 후추, 제주자색 골라비.

요리방법

1. 단맛이 날 수 있도록 살지 않은 새우살을 선택했다. 새우는 살짝 삶아 분홍빛이 나는 것과 살지 않고 파는 회색새우를 판매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새우 맛을 살리기 위해 살지 않은 새우를 선택했다. 새우는 잘 씻은 후 올리브오일에 소금과 후추를 약간만 뿌려 강불에 익힌다. 익힌 후 물기와 오일을 뺀다.
2. 연어의 경우 약 3cm의 두께로 썰어 둔 연어를 선택한다. 훈제 연어나 슬라이스를 선택하여도 상관없지만 훈제 연어나 슬라이스는 한 팩 전체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싱싱한 연어 한 팩만 구입했다. 연어는 다른 생선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고 영양가도 풍부하다. 새우는 올리브유에, 연어는 버터에 익히며, 거의 다 익었을 때는 포크, 주걱 등을 이용하여 살을 부수어 준다. 버터에 익힌 연어의 경우 연어의 기름기와 버터의 기름기로 새우살을 볶은 것과 비교해 기름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때, 기름을 체에 걸러 잘 빼주는 것이 중요하다. 새우살과 마찬가지로 체망에 기름기를 제거하고 식혀 준다.
3. 익힌 새우살은 도마로 옮겨 먹기 좋게 다져 준다. 거의 다 다졌을 때 연어살과 섞어 준다. 반은 만두소로 쓰이며, 반은 청경채와 함께 볶는데 사용 할 것이므로 전부 다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찜기에 물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만두피의 가장자리에 물기를 묻혀준 후 새우살과 연어살을 먹기 좋게 넣어 만두를 빚는다. 만두피는 판매용으로 사용했다.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냉장실에서 해동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찹쌀가루를 섞어 만두피를 만들면 좀 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
5. 이미 익힌 재료들이니 만두피만 잘 익을 때 까지 5~10분 정도 중불에서 찜준다. 잘 익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만두피의 끝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만두피의 끝부분, 즉 물기를 발라 접은 부분이 하얗게 밀가루가 남아있거나 아직 딱딱하게 살아있으면 좀 더 시간을 들여 찜는 것이 중요하다.
6. 청경채는 밀동을 잘라 잘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해 둔다. 만두에 들어가고 남은 새우와 연어를 넣어 올리브유와 쓰유에 볶아준다. **G**



2월 식물관리요령

식물은 잘 키워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크는 법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귀찮아서 식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늘 가까이 하며 애지중지 해도 시들시들하다 결국 죽어버리는 식물 땀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든인은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월 식물관리 요령을 짧게 소개합니다.



다육식물

휴면기에 들어간 다육식물은 최대한 물을 적게 주는 게 관리법입니다. 심지어 물을 안 줘도 크게 잘못되지 않으니, 키우기 힘들어 하는 분들은 물을 안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영상 5도에서 12도 사이의 베란다 환경에서는 휴면기간입니다.)

실내온도가 10° 이상이면 봄가을처럼 물을 주세요. 단, 밖으로 나있는 창문에 가까이 있으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햇볕이 드는 따뜻한 곳이면 좋습니다.

제법 싹이 났으면

2월에 싹이 났으면, 웃자람을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탠드를 활용하면 웃자람방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씨앗을 뿌리면 이삼일 후엔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는 순간부터 물을 킁 스탠드 밑에 놓아둡니다. 삼사일 후에 분얼이 나오는데, 그럼 더 이상 웃자람이 없습니다. 2~3cm 웃자라 있으면 스탠드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떡잎이 나오는 순간부터 놓아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진딧물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에는 진딧물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끈질기게 살아있는 진딧물, 실내라 약을 치기도 어렵습니다. 진딧물은 식물을 죽이거나 귀찮게 합니다. 잡다잡다 속상해서 없애버리거나 확~ 잘라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간혹 보이거나 너무 많으면 실외로 옮겨 약을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갈이는 어때요?

화분을 키울 때 분갈이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화분을 바꾸는 분바꾸기나 뿌리를 자르거나 흙을 교체해 화분을 바꾸는 분갈이는 뿌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하는 관리법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의 분갈이는 2월 하순이 적기입니다.



관엽식물

2월은 아직 저온일 뿐만 아니라 공기도 건조합니다. 식물도 덩달아 쇠약해지죠. 넓은 관엽식물일수록 건조한 공기에 잎이 떨어지면 안에서 수분이 많이 증발됩니다.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면 시들지 않겠지만, 저온기에는 식물이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하므로 뿌리도 별로 수분을 흡수 못합니다. 습도가 부족할 때에는 흙에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됩니다. 위에 분무해서 보호하거나 난방기 가까이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난방을 끄고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는 자연히 늘어납니다. 잎에 분무를 해주는 것은 난방중일 때 합니다.



씨앗을 심을 거면

수확을 빨리하길 원한다면 일찍 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단, 발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햇빛, 온도, 습도관리가 중요합니다.

가든인이 추천하는 Books

노시농업, 텃밭, 정원...

2013년 사람들은 웰빙을 넘어 힐링과 만났다. 내 몸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것과 조우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한해를 이끌었다. 단순한 먹거리를 떠나 내가 직접 키운 걸 먹고, 가꾸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바로 치유다.

2014년은 키워드는 몸, 균형과 역시 치유도 같이 간다. 여전히 사람들은 몸에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 균형잡힌 몸을 원한다. 더불어 치유도 원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가든인에서는 가든인 독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련된 책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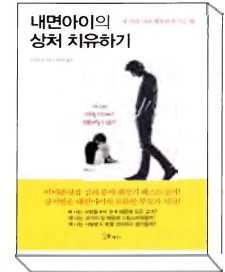


내 안의 나와 행복하게 사는 법

내면아이의 상처 치유하기

'내면아이'란 우리의 인격 중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으로, 감정을 우선시 하는 '직감적인' 본능을 말한다. 이 책은 내면아이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른'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크게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이나 개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2부에서는 각 상황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내면아이의 상처 치유법을 보여준다.

소울메이트 | 436쪽 | 16,000원



대한민국 도시농업의 미래 서울을 갈다

딱딱한 이론이 아닌, 도시농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농부'들의 현실감 넘치는 대담을 정리한 책이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 나아가 이 도시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던진다. 농업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이제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각자의 이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외국의 도시농업 사례, 우리 도시농업의 역사, 정책을 만들고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트러블까지 총망라하여 담았다.

들녘 | 180쪽 | 12,000원

농사일로 가꾸는 도시, 정원일로 즐기는 일상 텃밭정원 도시미학

농사일로 가꾸는 도시, 정원일로 즐기는 일상 『텃밭정원 도시미학』. 도시농사(또는 도시농업)는 도시민들이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살아있는 식물과 교감하는 것으로서, 농사를 통해 먹고, 보고 느끼고, 즐기는 인간 중심의 생산적인 여가 활동이다. 이 책은 농사와 정원일의 본질을 지적하는 책이자, 도시농사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텃밭정원과 정원일의 도시적 가치를 다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전한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76쪽 | 20,000원



식물 원예의 기초부터 정원 만들기까지 정원의 발견

방송차가 출신으로, 현재 정원설계회사 오가든스를 설립하고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오경화가 자신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의 노하우를 오롯이 담아낸 책이다. 저자가 직접 보고 느끼고 터득한 정원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원예의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힐링이 되는 원예 이야기와 함께 어려울 수 있는 가드닝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원예의 노하우를 알기에 앞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정원의 역사와 의미, 식물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 식물의 자생지를 이해하는 것이 왜 원예의 근본이 되는지, 정원의 바탕이 되는 흙을 이해하는 과정 등도 독자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더불어 유럽, 일본, 한국 등 200여 장의 정원과 가드닝 사진, 도판도 수록하였다.

궁리 | 324쪽 | 23,000원

내가 직접 기르는 베란다 채소의 모든 것! 베란다 텃밭 가꾸기

초보자를 위한 꿈꾸 가이드북 『베란다 텃밭 가꾸기』. 초보자도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을 통해 대부분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집 안의 부속 공간이 베란다에 쉽고 건강에 좋은 채소 작물을 재배해 싱그러운 정원을 만들고, 힐링 레시피를 통해 몸에 좋은 식재료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건강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채소와 허브 종류, 특징, 잘 자라게 하는 방법, 수확하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등 채소를 기르는 데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각각의 작물에 필요한 햇빛의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가정별로 베란다의 채광량에 맞는 채소와 허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서 | 240쪽 | 18,000원





김광무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민환식
농학박사 씨드뱅크 상임대표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문창섭
성북대학교 명예교수



이중석
서울여대 명예교수
한국도시농업 연구회 회장



김기순
(주) 그린라이프 대표



김명재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주연
농학박사



이정식
전 서울시립대
환경생명과학 교수



Q1. 자색을 띠는 고구마 품종이 있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연자미, 신자미라는 품종입니다. 어렵지만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서 물어보시면 쉽게 묘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색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들어있어 식용 및 식품가공용으로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높은 산간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아야 수량이 많으므로 중부지방에서는 온도가 높 아지는 6월초순경 이후에 심는 것이 수량도 많고 병충해 발생도 적습니다.

Q2. 잎만 이용하는 들깨 품종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있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요?

A. 잎들깨용 전용 품종이 있습니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서 문의하시거나 종묘가게에 가서서 구입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깃잎은 꽃이 필 무렵 수확해야 섬유질이 적당하고 식할 시 모양의 변화가 적습니다. 시금치의 다섯 배나 되는 칼슘과 철분이 들어있으며, 특히 적깻잎에는 비타민, 인, 칼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노화방비에 매우 탁월합니다.



Q4. 베란다에 보관중인 고구마가 검게 썩어 냄새가 나는 데 왜 그런가요?

답: 베란드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1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고구마는 높은 온도에서 자라는 식물로 저장 온도 또한 13~15℃로 작물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습도는 90% 이상입니다. 저장온도가 낮게 되면 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져 썩기 쉽고 색깔이 변하여 광택이 없어지며, 높은 온도에 저장하게 되면 호흡작용이 왕성해져서 양분이 많이 소모되며 쉽게 썩이 트게 됩니다. 고구마는 수확직후에 호흡작용이 제일 왕성해서 수확 후 30~33℃에 예비 저장하여 상처를 아물게 한 뒤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운반 시 껍질이 벗겨지거나 껍 때 난 상처부위에 병균이 침입하여 쉽게 썩게 되는 것입니다.



Q3. 시골에서 가을에 대파를 많이 가져와 보관중인데, 이용부위가 자꾸 말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파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 되어 오랫동안 보관이 쉽지 않은 채소입니다. 가을 대파를 저장할 때는 먼저 크기와 굵기가 일정한 것끼리 골라야 하고 들쭉, 마른 바깥 잎을 제거하여 연백부가 깨끗하도록 정리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뿌리를 가지런하게 모아 5~10개씩 묶어 뿌리가 흠에 묻히도록 긴 화분에 심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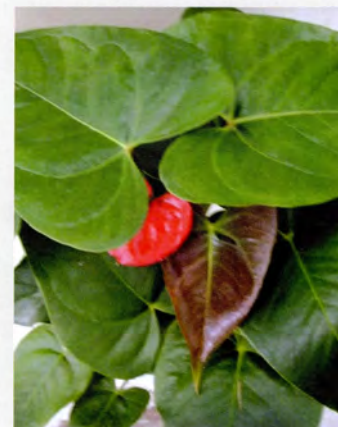


Q5. 선인장 일부분이 더운물에 덴 것처럼 썩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A. 선인장 밀둥색음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물을 줄 때 줄기에 사상균이 침입한 것 같습니다. 사상균은 줄기의 지제부 및 뿌리에 발생하여 심하면 식물체가 담황색으로 변하거나 갈색으로 부패하여 썩게 됩니다. 재배포장에 온도가 낮거나 식물체에 상처가 나면 쉽게 발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재배지의 온도를 높고 건조하게 키워야 합니다. 모든 작물은 관수 시 물의 온도를 23℃ 정도로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6. 상추 잎에서 나오는 우윳빛 색깔의 액체는 뭔가요? 많이 먹어도 인체에 피해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락투세린과 락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지만 줄기에서 나오는 우윳빛 즙액성분인 락투세린과 락투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소비되는 녹색채소입니다. 락투세린과 락투신은 진통억제 및 최면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쬔 상추를 먹게 되면 참도 잘 오고 몸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혈액을 중화시켜 피를 잘 돌게 해준다고 하여 식물정력제라고 한답니다.



Q7. 안시리움 잎 가장자리에 크고 작은 반점이 생기고 엽맥 주변으로 점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심한 것은 줄기가 부패되어 있으며, 아래 잎이 노랗게 변해지며 썩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A. 아마도 반점 세균성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세균이 상처를 통해 침입하여 양분이 나 수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따라 식물체 전체로 퍼져 피해를 주는 무서운 병입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키우는 곳이 습하거나 무더울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새 로 나온 잎이 선명하지 않으면 반점세균병이라고 단정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 병은 예방이 우선이며 발생 시 방제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접촉 시 다른 식물에도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병든 포기는 빨리 뽑아 없애버리거나 발병 즉시 태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이 발생되었던 화분이나 흙을 사용해도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경이로운 자연, 꿈꾸는 씨앗

자연은 경이롭다. 꿈꾸는 씨앗은 더 경이롭다. 수많은 씨앗이 봄을 기다리며 나뭇잎의 꿈을 꾸고 있다. 그 꿈들이 날개를 활짝 펴는 날을 기다리며 박수를 보낸다.

2월, 겨울이다. 바람이 매섭다. 아직 봄은 멀기만 하다. 초록이 그림고, 꽃이 그림다. 칙칙한 허허벌판은 기세가 대단하다.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 어느 땅이고 잘 자라던 잡초도 이 추운 겨울은 못 견디내고 말라붙어 버렸다. 봄은 오고 있는 건가? 애꽃은 날짜만 세어본다. 하지만 봄은 온다. 기어이 오고야 만다. 그것을 순리로 받아들이지 도 하여없는 세월이다. 조금하다.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 더디 오는 봄을 당길 수도 없다. 2월은 추위에 떠니 3개월을 넘어서일까? 지겹다. '제발 가벼려라' 라고 언 땅을 향해 포효도 해본다. 그러고도 남을 시간들이다.

유난히 추웠다.(개인적일 수도 있다.) 겨울 초반부터 추었다. 아이들은 방학에 들어가기 전이라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꼼꼼히 따져보고 추위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어야만 했다. 허연 입김 내뿜으며 등교해야만 했다. 1월은 어땠는가? 몇 년 만에 돌아온 삼한사온이라 했다. 삼일은 춥고, 사일은 따뜻하다했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일가 삼한사한 같다. 매일매일이 춥다. 겹겹이 껴입어도 춥고도 추운 나날이었다.

2월은 희망이다. 지척으로 봄이 다가왔다. 남녘에서 꽃소식도 물어올거고, 파릇파릇 쑥이며 냉이가 양지바른 곳에서 올라올 것이다. 어린 싹으로 추위를 밀어올리며 올라올 것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온갖 초록이며 꽃들이 찬바람에도 싹과 꽃봉오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다. 별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무심히 받아내는 이도 있고, 싹 하나에 꽃 하나에 놀랍고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

온몸으로 봄을 느끼고, 봄을 맞이하는 이야말로 자연의 무한한 힘에 겸손을 배우고, 위대함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는 순응을 배울 것이다. 그 순응을 잘 따르는 것이 수많

은 씨앗이다. 어찌 알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지 모르겠다. 본능이지 싶다. 계산하고 따져보는 우리와 본디 다르다. 따뜻한 햇살에 얼음이 녹음을 안다. 바람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계산하지 않는다. 싹을 틔울만 해서 틔운 뿐이다. 자연스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키워낸다. 꿈꾸는 씨앗의 시작이다. 얼른 자라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 더 많은 자손을 퍼트려야 한다. 깃발하도 이겨내고 꺾여도 다시 손을 밀어올린다. 끈질긴 생명력이다. 나약한 인간하고는 게임이 안된다. 온실 속의 화초라면 모를까. 시련의 세월을 이겨낸 수퍼씨앗에겐 어렵었다. 수백년의 세월도 품어낸다. 조건만 맞으면 그들은 각자의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봄을 맞고 여름을 보내고 결실을 맺는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보람이다. 경이로운 자연에, 위대한 자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줄탁동시란 말이 있다. 알 속의 병아리가 세 시간 안에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한다. 알 속에서 아직 단단하지도 않은 부리로 껍질을 쪼아대는 것을 '줄'(빠는 소리 줄)이라 하고, 이때 어미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깥에서 부리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타'(啄:조을 타)이라 한다. 이처럼 줄과 타의 동시에 일어나야 한 생명이 온전히 탄생한다는 뜻으로, 부모와 자녀사이가 그와 같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연이 씨앗을 품어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든 혼자서는 안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한다.

2월 4일은 입춘, 2월 19일은 우수다. 봄은 그렇게 오려고 절기상으로도 나와 있다. 자, 힘찬 출발을 위해 기지개를 켜보자. 가든인 독자 분 모두 입춘대길(立春大吉)하시길 바란다.

2014 이천그린아카데미

제 5기 교육생 모집



알기 쉽게 실습을 함께 진행하는 '도시원예 아카데미' 교육과정 안내

교육의 특징

1.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취미원예생활을 독려하며,
2. 정원문화와 도시정원문화가 우리나라에 생활 속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3. 일반 원예학의 지식 습득과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원예 기술의 활용 교육입니다.

실습교육의 특징

야생화정원가꾸기, 베란다정원만들기, 텃밭가꾸기, 잔디정원가꾸기 등 정원을 실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종자의 파종, 육묘, 식물의 재배와 병충해 방제, 화분의 이식, 분재의 정형 등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연습과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관심두었던 원예학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정에서 바로 활용하여 취미 원예생활을 즐겨움과 깨달음을 보다 교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모집)
- 교육일정 : 2014년 04~07월 (매주 수요일)
- 교육장소 :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 자세한 문의 사항
Tel, 031-634-7990, hiclick228@naver.com



[가든인 정원디자인 공모전]

정원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독자와 정원의 디자인 문화의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의 디자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4년 1월~3월 5일까지
- 응모기간 : 4월~9월, 월1회씩 선정 및 전시
- 전시장소 : 우리꽃농원 (이천시 모가면)
- 참가대상 : 학생~일반인, 전문인
- 신청규격 : 사이즈 3mx6m (식재디자인포함)
- 접수처 : gardenin2014@hanmail.net
- 담당자 양순선 Tel, 031-634-7990
- 주 최 : Gardenin잡지&우리꽃영농조합법인



2014 초화, 야생화 종자 TOP 11



꽃이 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에키나세아!!**

술방울 이삭이 아름다워 절화로 좋습니다. 다년생으로 매년 만나볼 수 있는 분홍 에키나세아
■ 초장 : 60~70cm | 파종 : 3~4월 | 개화 : 6~8월 | 5g : 3,000 원



바람에 날아가는 나비 같은 **풍점초**

꽃 피기전 실타래모양으로 꽃술을 꽃잎에 싸고 개화하면서 풀어놓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초장 : 60~70cm | 파종 : 3~7월 | 개화 : 6~10월 | 5g : 1,500 원



매우 화려하여 축제에 많이 이용되는 **양귀비!**

귀하의 집앞에 축제를 재현해보세요.
추파용 종자로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다음해에 크고 건강한 양귀비꽃이 개화됩니다.
■ 초장 : 70~100cm | 파종 : 10~11월초 | 개화 : 5~6월 | 5g : 3,000 원



빠르게 꽃을 피워내는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파종 후 60일후에 개화되어 작고 귀여운 코스모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초장 : 60~80cm | 파종 : 3~7월초 | 개화 : 6~10월 | 5g : 3,000 원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브로콜리!**

식이섬유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관리에 탁월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 재배가 좋습니다.
■ 파종 : 3월 또는 7월 | 15~20℃로 관리 | 장마철 주의 | 10립 : 1,000 원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근대!**

뿐만아니라 골다공증예방 및 항암효과에 탁월합니다. 초보자가 기르기 쉽습니다.
■ 파종 : 3월 / 이식 : 4월 / 수확 : 6~11월 / 1g : 2,000 원

금연 도움을 주는 **케일**

니코틴 제거 효과가 뛰어나 금연 계획을 세우신 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호냉성 채소로 추위를 잘 견뎌 겨울까지 실외 재배가 가능합니다.
■ 20립 : 1,000원

산후 조리에 좋은 노란 **호박!**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산후 붓기 빠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발아율이 매우 좋습니다.
■ 3립 : 3,000원

노화를 예방해주는 고마운 **빨간무(비트)**

파종 후 20일 만에 수확 가능합니다.
실내,외 어디든 잘 자랍니다.
■ 1g : 2,000원

흙 없이 기르는 **새싹채소!**

씨앗을 하루정도 물에 불렸다가 물 적신 솜위에 뿌린 뒤
5~7일이면 바로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 1g : 1,000원

봄~가을까지 계절따라 다르게 연출되는 **26종의 야생화**

26종의 종자가 혼합되어 개화시기에 따라 다양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년생 종자로 이루어져 매년 관상이 가능합니다.
■ 파종 : 연중가능 | 1kg : 140,000원



가든조아

가든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

집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는 작은 소품부터 정원에 어울릴 수 있는 새집까지 다양한 종류를 만날 수 있는 가든조아
 2014년 유럽풍 스타일의 고품격 신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졸업식, 입학식, 기념일날 이벤트용으로 사용하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말의 해' 로킹체어 13,000 원	세라믹 양 15,000 원	애벌레친구 (2개set) 23,800 원	패밀리 액자 23,200 원
발렌타인 아로마향기 11,000 원	세라믹 앵두액자 개당 23,500 원	소형 서랍 15,000 원	세라믹 잔디인형 6세트 14,500 원
발렌타인 향초 2개세트 10,000 원	캔들 디자인소품 25,000 원	세라믹 장식버드 대 : 35,000 원 / 중 : 20,000 원	나무열쇠함 15,000 원

새해맞이 신상품 선물용품 보유 / 한정판매!! 가든조아에서 만나보세요.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제공

문의전화

Tel.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원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구독

16.6% OFF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17-0005-7946-71

(입금 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문의 : 031-712-7009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GARDENIN 50% 할인권

월간<가든인> 정기구독이벤트 [기간] 2014. 2. 1 ~ 2014. 2. 28



월간<가든인> 구독이벤트
 가든인 50% 할인권은 201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든인 50% 할인권은 201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든인 50% 할인권은 201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your visit!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한 후원회비를 위해 정확한 주소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17-0005-7946-71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 할인권

[기간] 2014. 2. 1 ~ 2014. 2. 28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물로 판매 및 영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편집후기

2014년 1월 8일, 적송할 색도 없이 업무에 착수했다. 밀고도 먼 출퇴근 길, 낯선 내용 환경, 인사 나눌 겨를도 없었다. 10년을 짊어만 있다가 나온 선행과 두려움의 시간들이었다. 두세 달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해야 하는 벽장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내 것인 날 다음호에는 무엇으로 채워볼까? 의 고민으로 확장된다. 방학 중인 아이들에게 일과를 알려준 다음, 그때부터 나의 일은 시작됐다. 하루 일을 체크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식일이 일에 몰입해서 진행했다. 그날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은 집으로 가져와서 마무리했다. 잡지의 생리가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또 출퇴근의 여유를 허락받은 타이기에 책임감이 더 무거웠다. 2월호를 마감한 지금,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정식일이 보낸 지난 며칠이 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상감될 것 같다.

발행 박희수(주)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꽃 대표 / 이학박사
편집인 이 명
전문위원 김광두 前성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준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박사
우정아 경기대경기대대학 강사 / 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필성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식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황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감수 김종근 제이트가든 팀장
책임기자 김지태 jtsummer@gmail.net
황주리 jurie777@hatmail.net
디자인인쇄 보마드 bomad@naver.com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럽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올 컬러 사진 제공
- 혼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혼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올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20,000원 (정가 32,000원)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테르메덴 50% 특별할인권
유효기간 : 2014년 12월 28일까지
1인 1매 (가족 4인용)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만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